쪽박찬 신한은행 '金테크'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1일 화요일 제0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31일>

코스피 1941.49 (+3.82)

코스닥 687.11 (-0.85)

금리(국고채 3년) 1.72 (+0.01)

환율(원·달러) 1183.50 (+6.50)

기아차 하청업체 직원 한규협씨와 최정명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 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며 82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아차 고공농성 상황실 제공

직원은 죽고, 간부는 썩고

"2년 이상 사내 하청은 정규직" 판결도 무시 기아차 비정규직 "같이 살자" 82일째 농성

기아자동차가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499명이 지난해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정규직 지위확인소송에서 전원 승소했지만 기아차는 법원의 판결을 부당하다고 불복하며 항소하는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완성차 공장의 모든 사내 하도급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하청업체의 계약·운영이 도급의 형태를 갖췄어도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한다.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상 근무한 모든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31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에 따르면 하청업체 서린과 한울 소속 직원인 한규협씨와 최정명씨는 6월 11일부터 이날까지 82일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의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농성 중이다.

최종원 기아차 화성분회 고공농성 상황실장은 "현대차그룹은 비정규직에 대한 소송을 무한정 시간을 끌어 자유로운 파견·도급이 가능하게 법이 바뀌길 바라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아차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점진적인 로드맵이나 방향성을 알 수 없어 농성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와 한씨는 농성 71일째였던 지난 20일 해고 통보를 받고 노조 성명에 이어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최 실장은 "2007년부터 9년 넘게 기아차와 업체를 위해 일해 온 직원들에게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했다"며 "이에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법적인 판결이 났음에도 여전히 현대차그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나서야 한다.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실장은 "그룹의 고용정책·임금피크제 도입 등 굵직한 대외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도 특별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그룹차원에서 기아차 농성 등의 내부적인 문제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아차가 지난해 9월 재판부 1심 판결에 항소해 장기간 법적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00여명이 지난해 9월 10여년 만에 정규직으로 인정된 판결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이 공론화돼 지난해 9월 정규직 판결을 받기까지 10여년이 걸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현대차는 불법파견 대상자는 최병승 조합원 단 한 명뿐이라고 주장하며 불법파견 문제를 그룹 전체로의 문제로 보지 않고 판결의 의미를 축소·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무시했다.

이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측은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기업들은 두 가지 전략을 펼치고 있다. 판결이 난 사안은 개인·개별의 문제로 치부해 결과를 축소시키려 한다. 또한 2심·3심 진행 중인 것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란 이유를 들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사내하청 근로자와 관련해 올해까지 1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하청업체 소속직원들의 법적 대응검토에 대해서 기아차는 특별하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현대차 계열사 사보 놓고 핵심 간부들 "내가 먹겠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출신 퇴직임원과 현대로템 현직 임원이 각각 자신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등 특정 업체에 계열사들의 사보 제작을 맡기면서 일감몰아주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 현직 전무와 현대차 계열 출신 임원 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져 사보와 노조소식지를 관계사들이 나눠 맡는 등 현대차그룹의 퇴행적인 기업문화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1일 현대차그룹 내부관계자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보를 제작하는 원더엔터프라이즈는 유홍종 전 현대비엔지스틸 회장(현 상임고문)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로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그룹사의 사보를 독점적으로 제작해오던 곳이다.

한편 노 모 현대로템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은 현대차그룹에서 노무홍보담당을 맡다가 2012년 현대로템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노 전무는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한규환 전 현대로템 대표이사(현 고문)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현대로템 이직 후 기존 사보 제작을 워크디자인이란 업체로 바꾸기 위해 업무 담당자들에게 업체 변경을 지시했다. 이를 담당하던 당시 현대로템 홍보팀 관계자가 업체 변경의 이유가 없다며 이에 반대하는 보고를 올리자, 사보 발행을 폐지하고 대신 소식지라는 형태로 성격이 다른 인쇄물을 발행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업체인 원더엔터프라이즈는 노 전무의 행보에 반발해 그룹을 통해 당시 현대로템 한 대표 등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사내에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워크디자인 매출은 2012년 1억6300만원에서 2013년 3억12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워크디자인 관계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과 현대로템의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다"며 "회사 대표가 컨설팅 업계에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 노 전무와 알 수도 있지만, 일은 공개입찰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더엔터프라이즈 관계자는 "현대차그룹뿐 아니라 현대그룹 계열사와도 일하고 있다"며 "사장의 남편이 현대차 계열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보 제작 관련 수주는 입찰로 이뤄져 일을 쉴 때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무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현대로템 측은 "사보와 소식지 등 비용이 나가는 업무는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한다"고 답했다.

/이정필 기자

Samsung C & T merger, would happen as scheduled?

삼성물산 합병, 예정대로 될까?

On the 4th of September, The court is going to make a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for stopping the procedure of the merger of Samsung corp.' that the community of minority shareholders came up with. Therefore, whether the merger will be accepted as expected is drawing people's attenti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ivil court department (Kim Yong Dea, a chief judge) proceeded with the interrogation dates on the application of the injunction on the 28th. The community of minority shareholders of Samsung corp. previously posed the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for stopping the procedure of the merger of Samsung corp.'

On the day, the court said they will look into this issue in terms of the decrease of preferred dividend in total, the drop in number of outstanding stocks, and damage of principles due to the ratio of the merger. Because it is not possible to set a date for the next court due to lack of time, The court also told the attorneys on the both sides to submit additional responses by the first day of next month.

Samsung Corp. and Jeilmojic is planning on the merger on the first of September and registration on the 4th.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탄생한 '뉴 삼성물산' 출범을 하루 앞 둔 31일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가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는 4일 이전에 결론을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병이 예정대로 관철될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는 '삼성물산 합병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선배당금 전체 규모 감소, 유통주식수 감소, 합병비율로 인한 우선주의 피해 등 쟁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일이 촉박해) 다음 기일을 잡을 수 없다"며 양측 법률 대리인들에게 1일까지 서면을 통해 추가적인 답변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1일 합병하고 4일 합병등기를 할 예정이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중국 정부**가 대규모 매수 개입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 노력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복수의 중국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아시아의 거대 반도체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 **중국의 증시파동**과 위안화 절하 이후 외자유출이 가속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고정자산 투자 가운데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에 30.9%나 줄었다.

▲ 인간의 뇌 연구에 매진하면서 희귀 신경질환 환자들의 삶과 특별한 재능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기록해온 저명 의학자 **올리버 색스**가 30일(현지시간) 별세했다.

정치

▲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중국 방문 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수행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에 단독 상정했다.

▲ 정부는 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은 우리 국방부가 밝힌 참수작전(김정은 제거작전)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산가족 상봉 등 8·25합의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재벌총수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일부 스마트폰 앱이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악용 위험성이 제기됐다. 실제 사생활 정보를 해외 마케팅 회사로 빼돌린 사례가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회

▲ 교육부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와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지역거점대학교인 강원대와 고려대·홍익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충주)캠퍼스 등 유명대학 지방캠퍼스도 하위(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구세군자선냄비본부**는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저소득층 청각장애인들의 인공와우 수술비를 지원하는 '와우(WOW)소리선물캠페인 시즌2'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일부터 점심시간대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에서 요일별 특화행사를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

▲ **강신명** 경찰청장이 구파발 검문소 총기 오발 사망사고와 관련, 총기 휴대 제한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대 '찾아가는 채용 설명회' 하반기 공채시즌을 앞두고 31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에 하반기 채용설명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가 합병 결정 이후 큰 폭 떨어지다 통합 삼성물산 출범 직전 반등세로 돌아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매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5위권에 진입했지만 중동지역 매출은 부진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골드뱅킹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금' 관련 금융상품에서 지난 분기 4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상반기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재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SK텔레콤**이 오는 4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유럽 최대 가전전시회)2015'에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중 처음으로 참여해 생활가치 플랫폼과 사물인터넷(IoT)플랫폼을 선보인다.

▲ **SK텔레콤**은 'TG앤컴퍼니'가 제조한 스마트폰 '루나'(LUNA)를 오는 4일 단독 출시하기로 하고 1일 오전 9시부터 예약 가입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 **효성그룹**이 (주)효성과 9개 계열사에서 2017년까지 3년간 연 평균 1500명씩, 총 45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효성그룹은 올해 상반기, 작년 동기 대비 106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완료해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행해 왔다.

▲ **LG전자**는 오는 4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5'에서 'LG 워치 어베인 럭스'를 공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LG 워치 어베인 럭스'는 'LG 워치 어베인'의 럭셔리 에디션으로 전문 세공인들이 약 50단계의 공정을 거쳐 23K 금을 시계 몸체에 입히고 고급 악어가죽 스트랩을 적용했다.

▲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과 경영진이 홈플러스 매각을 앞두고 홈플러스의 이익에 반하면서까지 테스코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홈플러스의 장부가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과 함께 테스코로부터의 고금리 대출, 700억원대 로열티 지급, 1조원대 배당금 계획까지 드러나며 사실상 도 사장과 경영진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삼성물산 패션부문**(구 제일모직·대표 윤주화)이 웨어러블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4일부터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A 2015(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Berlin 2015·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에 처음으로 참가해 웨어러블 제품을 공개한다.

靑, 역대 '최대' 中 경제사절단 꾸린다

한·중 FTA 등 경제협력 논의 새누리당서 비준안 단독 상정 시 주석과 북핵 등 정상회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모델 출신의 여군 의장대원 먼자후이(가운데)가 열병식 스타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9월 2~4일 중국 방문 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수행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의 목적이 중국 전승절 참석인데다 열병식 참석으로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가 부각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고, 리커창 중국 총리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은 시 주석이 정치분야를, 리 총리가 경제분야를 맡아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에 단독 상정했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경제사절단은 이전 중남미 순방 때 125명보다 31명이 더 많은 156명으로 구성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참여 기업은 128개로 이 중 105개가 중소기업이다. 참여 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은 4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해 중국 현지 기업들과 2차례에 나눠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박 대통령도 참석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을 계기로 △로봇, 보건의료, 문화, 환경, 금융,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구체적 인프라 협력 논의 △양국 금융시장 안정화와 발전 방향 협의 등의 경제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2일 도착 당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방안과 한중 FTA 등 양국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면담을 통해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와 효과 극대화 등 다양한 경제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번 방중은 짧은 기간이지만 경제적으로 큰 성과가 기대돼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세계 및 지역경제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한중 FTA 활용 등 양국간 호혜적 경제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와 앞으로 양국 경제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지에 대해 총체적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FTA는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중국에서는 현재 국무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중국에서의 비준이 9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우리 국회에서 조속히 비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비준돼야 한국에게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날 단독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포괄적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불참했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에서 한중 FTA 외에도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 전승절의 의미를 통해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도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주 수석은 "우리는 이번 기념행사가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화합과 협력을 촉진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절 행사는 베이징 톈안문 광장에서 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11시30분까지 진행된다. 박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도 참관한다. 중국측의 발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톈안먼 성루에 올라 시 주석 옆에서 이날 행사를 지켜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中 증시, 정부 개입 포기에 내리막

공안 유언비어 유포자 처벌 투자심리 위축에 다시 하락

중국 상하이증시가 26일(현지시간)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1.27% 하락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1.27%(37.68포인트) 하락한 2,927.29로 마감했다. /AP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대규모 매수 개입을 통한 증시 부양 정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중국 고위 관리들의 입에서 나왔다. 중국 정부는 대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세력을 찾아 처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실제로 중국 공안당국은 최근 증시 폭락 사태, 톈진항 폭발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자 등 197명을 처벌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31일 중국 증시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27일 당국의 증시 개입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매수 개입은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증시 부양은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시적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FT는 앞으로 중국 정부는 정부의 증시 부양을 이용해 이익을 보거나 증시 부양 노력을 방해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처벌하는 정책을 쓸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중국 증권당국은 지난 주 증권사와 증권 거래소, 선물 거래소, 정부 산하 업체의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해 시장에 대한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또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최근 증시 폭락 사태와 톈진 폭발사고와 관련해 유언비어 유포자 197명을 처벌했다. 이들은 증시 사태와 관련해 "남성이 베이징에서 주가 폭락 때문에 투신해 사망했다"거나 "증권회사가 5000만 고객에게 리스크 경보를 발표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가 적발됐다. 유언비어 중에는 "공산당 지도자의 가족이 홍콩에서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날 중국 증시는 이 같은 소식에 더해 미국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36포인트(0.82%) 하락한 3205.99로 장을 마감했고, 선전종합지수는 마지막 거래일보다 56.52포인트(3.06%) 내린 1790.31로 장을 마쳤다.

/송시우 기자 swsong@

이스라엘군인, 팔레스타인 소년 무력 진압 논란 이스라엘군이 지난 8월 28일 웨스트뱅크에서 팔에 붕대를 감은 팔레스타인 소년의 목을 조르면서 억류하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이 전세계로 송출된 후 이스라엘군의 야만성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中 경기 침체에 삼성·SK 위기설 솔솔

양사, 中악재에도 반도체 투자 WSJ "공급 과잉 덫에 걸렸다"

중국 경제위기의 다음 희생양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급업체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기둔화, 스마트폰 시장 포화, 시장 변동성 등이 결합된 중국의 경제위기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게 돼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회사는 중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도체 투자에 나선 상황이다. 삼성은 오는 2017년까지 경기도 평택에 15조6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 10년간 46조원을 투입해 세 개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세울 예정이다. WSJ는 중국 시장의 성장 둔화로 공급과잉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번스타인리서치에 따르면 2012~2014년 3년간 중국 스마트폰 판매는 두 배 이상 늘어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대수 12억7000만대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 스마트폰 판매는 앞으로 2017년까지 약 4억대에서 정체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스마트폰 판매가 정체되면서 중국 업체는 늘어나는 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번스타인에 따르면 레노버의 현재 스마트폰 재고는 12주 판매분에 해당된다. 이는 애플의 4주분, 삼성의 7주분과 대조된다.

WSJ는 반도체 업체들이 스마트폰 시장 성장둔화에 대한 대안이 없어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PC와 태블릿의 글로벌 판매는 이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병형 기자

앱, 사생활정보 무차별 수집… 어디에 쓰나?

백신 앱 '360 시큐리티' 44개
스팸방지 앱 '후후' 33개 등
기능과 무관한 접근권한 요구

해외로 빼돌린 사례 적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일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앱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악용 위험성이 제기됐다. 통화기록, 위치정보, 문자메시지, 사진, 주소록 등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법령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앱들이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접근해 수집할 수 있다. 실제 사생활 정보를 해외 마케팅 회사로 빼돌린 사례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1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구글플레이의 랭킹 상위 앱 30개(7월 넷째주 기준, 앱 랭커 참고)를 분석한 결과, 모바일백신 앱 '360 시큐리티'는 이용자에게 44개의 접근권한을, 스팸방지 앱 '후후'는 33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했다.

접근권한이란 앱 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접근해 특정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등 기기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통화기록 읽기, 위치 읽기, 문자 메시지 읽기·수정·삭제, 사진·동영상·문서 파일의 읽기·수정·삭제 등이 있다. 구글플레이 랭킹 30위권의 앱들은 평균적으로 19.4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랭킹에 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의 경우 앱 본연의 기능과 관련이 있지만 '360 시큐리티'나 '후후'는 앱 기능과는 무관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360 시큐리티'의 경우 인터넷 기록 읽기, 연락처 확인, 문자 메시지 확인, 통화기록 읽기, 사진과 동영상 촬영 등 백신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다. 같은 백신 앱인 'V3 모바일 플러스 2.0'은 '360 시큐리티'의 5분의 1인 8개의 접근권한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에는 통화기록이나 주소록, 위치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접근권한은 없다. '360 시큐리티'가 앱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접근권한을 요구했다는 방증이다. 해킹이나 무분별한 정보탈취 시도에 대비하려고 백신 앱을 받자는 건데 오히려 사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넘겨주는 셈이다.

'후후'의 경우도 일정을 이용자 몰래 수정하는 권한을 비롯해 주소록, 위치, 문자, 통화기록, 저장파일, 사진·영상 촬영, 녹음 등 스마트폰의 거의 모든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역시 스팸방지 기능과는 무관한 권한들이다.

이 같은 과도한 접근권한 요구는 은행의 뱅킹 앱에서도 나타난다.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의 앱은 모두 약 20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한다. 이 중에는 폰뱅킹과 무관한 문자, 저장파일, 사진·영상 촬영에 대한 접근권한도 있다. 특히 농협의 'NH 스마트뱅킹'은 주소록, 위치, 통화기록까지 요구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앱의 무분별한 접근권한 요구는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위험까지 있다"며 "실제로 '플래쉬라이트'를 비롯한 손전등 앱 몇 개가 본래 기능과 무관한 권한을 요구하고 이를 악용해 1000만명의 위치 정보와 개인 일정을 몰래 해외 마케팅 회사로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앱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이날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정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

"80세 이상 고령자 걱정"
與, 상시·대규모화 요구

北 8·25합의 이행 확고
남북 간 신뢰회복 기대

정부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실무접촉에서 논의할 의제는 주로 상봉 행사에 중점을 둘 것이고, 정례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9월 7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남북은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 시점, 장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갖는다.

정 대변인은 "상봉 날짜는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북쪽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아무래도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고려해서 추석 계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교환에 대해서는 "접촉이 있어봐야 하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 내에서는 대규모로 정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수는 12만 9000여명으로 이 중 6만 3000여명은 사랑하는 가족을 생전에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산가족 생존자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라 절박한 상황"이라며 "소규모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화·정례화·대규모화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명단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당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위급 접촉 결과를 두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지만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합의 이행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는 우리 국방부가 밝힌 잠수작전(김정은 제거작전)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우리는 약속한 것은 다 (이행)하고 약속 어기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남쪽에서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가 좋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고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북쪽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8·25 합의를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합의사항이 잘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北 승무원, 2년 만에 '여신급'으로 변신 북한 유일의 국제항공사인 고려항공 승무원들의 '화사한 미소'와 '세련된 치장'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북한의 대외용 월간 화보 조선 9월호(오른쪽)에는 다섯명의 여자 승무원들이 표지 모델로 등장했다. 왼쪽은 2013년 이전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 /연합뉴스

이종걸 "국감에 이재용·신동빈 꼭 부른다"

정용진도 증인채택 절차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1일 재벌총수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에 나와 '꼭 국감장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는 기업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삼성물산, 롯데"라며 "그 문제는 지금 논의 중에 있다. 제가 미리 밝히는 것이 (새누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략 지금 제일 형식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두 기업을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야당도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흐지부지라기보다는 (야당이) 강하게 요청했는데 여당이 항상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고 일정을 미루고 거부하면서 제대로 협상을 이루지 못한 과거의 예를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증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번 국감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부회장과 신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이유와 관련해서 "이번에 롯데 사태를 봐서 (재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며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한 행위라든지, 재벌을 일방적으로 두둔한 거라든지,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전근대적인 경영 방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재벌의 오너 중심 경영 체제에서는 재벌 리스크가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실제 사장이나 실무자를 통해서 알 수가 없다"며 "그 대답도, 그 사실에 대한 진상도, 오너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에서는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국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송병형 기자

전국 37개 대학 학자금 일부 또는 전면차단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조치방안 발표
4년제 16곳·전문대 21곳 D-~E 등급 받아

교육부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14.1)에 근거해 시행됐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그룹 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그룹 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 등급, 70점 미만을 E 등급으로 구분했다.

이번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게 된 곳은 D와 E등급을 받은 4년제 32곳·전문대 34곳이다. 그 중 D-와 E등급의 경우에는 모든 학자금에 대해 일부 제한 또는 전면 제한을 받게 된다. D등급을 받은 대학 중 지역거점대학교인 강원대와 고려대·홍익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충주)캠퍼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유일한 거점대학인 강원대는 이의제기는 물론 행정소송까지 불사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D등급을 받은 대학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4년제대 중에선 D-등급을 받은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등 10곳은 일반학자금 대출이 50%로 제한된다. 각종 정부 재정지원이 모두 끊기는 E등급인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6개 대학은 일반·든든학자금 대출을 모두 100% 받을 수 없다.

전문대의 경우 김포대 농협대 등 14곳이 D-등급이다.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등 7곳이 E등급을 받았다. 4년제대와 마찬가지로 D등급은 일반학자금 대출 50%, E등급은 일반·든든학자금 100%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명단

구분(제한 범위)		학교명
4년제 (16개)	일반 50% (10)	강남대학교, 경주대학교, 극동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영동대학교, 청주대학교,호원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일반 든든 100% (6)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전문대 (21개)	일반 50% (14)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서일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충북도립대학, 한영대학
	일반 든든 100% (7)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

교육부는 전체 등급 평가를 통해 총점 기준으로 그룹I(A·B·C등급)과 그룹II(D·E등급)로 나눴다. 4년제 32개교, 전문대 34개교가 D~E 등급을 받았다.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숫자와 D~E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숫자가 다른 것은 교육부가 D등급을 세분해 D+와 D-로 나눠 적용했기 때문이다. 일반학자금 대출 50% 제한을 받는 대학들은 D-등급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당초 예비하위그룹으로 2단계 평가를 받았던 대학들 중 상위 10%를 최종 발표에서 C등급으로 올리려 했으나, C등급으로의 상향조정을 하지 않고 D+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대신 D+등급 대학들에 대한 제재는 보다 완화 적용된다.

즉 D+등급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D-등급은 든든학자금은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학자금 대출은 절반으로 제한된다. E등급 대학은 종류를 불문하고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등 '돈줄'이 전면차단된다. 사실상 퇴출 수순이다. 교육부는 컨설팅을 통해 E등급 대학의 평생교육시설 전환을 유도한다.

교육부의 이번 평가결과와 구조개혁 조치 방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에 적극 나선다.

두 번째,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은 엄격한 재정 규율을 적용하고 기능 전환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평가결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학엔 재정지원 제한 등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질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학사구조 개편 등 질적 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이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심점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학생 한 명, 한 명이 원활히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이산가족민원실 찾는 상봉 신청자들 31일 오후 서울 중구 소파로대한적십자사 본사 이산가족민원실에서 남북교류팀 직원들이 방문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의 서류 접수 및 확인을 돕고 있다. 정부는 이날 다음 달 7일 판문점에서 개최될 예정인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檢 변죽만 울린 '포스코' 수사

정준양 소환으로 마무리

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 그룹회장을 주중 한차례 더 소환한 뒤 불구속 기소로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31일 포스코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이번 주 중반 소환하기로 정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핵심 인물에 대한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협력업체 동양종합건설에 대규모 해외공사를 몰아주며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정 전 회장 등 그룹 수뇌부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겨누고 수사의 칼을 빼들었지만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에 대한 혐의 입증 단계에서 번번이 쓴맛을 맛봤다.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기각된 것. 게다가 포스코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60)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수사만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미란 기자 actor@

2018년부터 초중고 국어·영어 학습량 준다

연극·독서는 활성화

2018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영어와 국어의 학습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연극과 독서 수업은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10시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김경자 위원장), 교과교육과정정책연구팀과 공동으로 초등통합, 국어, 영어, 제2외국어, 한문의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자리다.

영어 교육과정 시안은 현행보다 성취기준 수를 30% 정도 감축하고 학교급별로 어휘를 나눠서 제시하는 등 학습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초·중학교에서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에서 읽기와 쓰기를 강조했다. 초등통합교육과정에서는 1~2학년에 '안전생활' 교과가 새로 도입된다.

안전생활은 체험중심의 교육으로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국어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체험중심의 연극 수업이 강화된다. 초등학교 5~6학년 국어에서는 연극 대단원이 개설되고 중학교 국어에는 연극 소단원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9월 4일까지 사회, 역사, 체육 등 다른 교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전문가 및 현장교원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9월 말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초·중·고등학교에 2018년부터(초등 1~2학년은 2017년)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내달 고속道 견인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경찰청이 다음달 한 달간 고속도로 견인차의 법규 위반을 특별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분야는 견인차의 갓길운행·과속주행 등 난폭운전, 역주행과 후진, 불법 주정차,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특히 경광등, 사이렌 등을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고 변경할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소유자도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견인업체에 준법운행을 위한 서한문을, 운전자에게는 법규준수 문자를 보내 안전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김서이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몰카용 카메라' 생산·소지 제한 입법 추진

강신명 청장, 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대책 발표
경찰, 전파법상 인증 안된 불법몰카 집중 단속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이 몰카용 카메라 생산과 소지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31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대책'을 밝혔다.

강 청장은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은 카메라,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촬영된 영상을 별도의 저장장치로 전송하는 블루투스형 카메라의 경우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셈이다.

경찰은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몰카와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되는 몰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파법상 인증을 받았거나 촬영·저장장치 일체형 몰카는 규제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몰카 자체를 불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아울러 전국의 대형 물놀이 시설 97곳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해 소지형 몰카 촬영자를 검거하기로 했다.

주말·연휴 등 이용자가 많은 시간 위주로 하되 활동 기간은 지방경찰청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중소 규모 물놀이 시설에는 여경 수사팀이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서 잠복근무하도록 하고 여경이 부족하면 다른 부서 여경을 동원하도록 했다.

몰카 범죄와 영상유포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활성화한다.

강 청장은 또 구파발 검문소 총기 오발 사망사고와 관련, 총기 휴대 제한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직무상 비위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되거나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는 경우, 사의를 표명한 경우엔 총기와 탄약 사용이 금지되고,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등은 총기와 탄약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총기 휴대시 사고 위험이 큰 이들에게서 총기를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강 청장은 "중장기적으로 사격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 근무 성적평가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찰관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해 총기 휴대가 명예가 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총기 인수인계가 총기관리의 시작과 끝"이라며 총기의 인수인계를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곳에서 하도록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박모 경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총기 휴대 제한자 확대하겠다"

강신명 청장 "CCTV 앞에서 총기 인수인계"

강신명 경찰청장이 구파발 검문소 총기 오발 사망사고와 관련, 총기 휴대 제한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강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장기적으로 사격이 일정 수준 이상, 근무 성적평가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찰관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해 총기 휴대가 명예가 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총기 인수인계가 총기관리의 시작과 끝"이라며 총기의 인수인계를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곳에서 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직무상 비위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되거나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는 경우, 사의를 표명한 경우엔 총기와 탄약 사용이 금지되고,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등은 총기와 탄약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강 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박모 경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고령 대가야문화누리 경북 고령군이 9월 16일 문을 여는 대가야문화누리 전경. 고령군은 2012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옛 고령여중고 땅 3만5천여㎡에 429억원을 들여 문화예술회관 국민체육센터, 문화원,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자활센터, 여성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구성된 대가야문화누리를 지었다. /연합뉴스

'중앙대 특혜' 박범훈 재판에 이주호 장관

이주호(54)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중앙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31일 열린 박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전 장관이 9월 14일 오후 2시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4일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강연과 학사 일정 등으로 출석이 어려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 전 수석 측은 지난 기일에서 중앙대 단일교지 인정 문제와 관련, "특혜가 아닌 국가 교육정책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장관은 정책적 결정을 했을 뿐 실무적인 것은 실·국장들이 했다"며 "(이 전 장관이) 상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교지 매입비용 절감을 위해 중앙대 본·분교를 단일교지로 승인 받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앙대 측으로부터 상가 임대를 제안 받고 임차수입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관현악 공원 후원을 요청해 두산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원 안팎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며, 중앙국악연수원과 관련해선 양평군으로부터 건립비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이중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연미란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 법리해석 엇갈려

노조 "임금을 깎는 제도"
정부 "사실상 이익 있다"

현대자동차와 롯데, 포스코그룹 등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데 반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등 10대 과제 관철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법리 해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31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노조 측의 반발이 거세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가 임금을 깎는 제도"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사실상의 이익이 근로자에게 있다. 사용자가 임금체계를 적정하게 설계하고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을 다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엔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임금삭감과 정년연장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임금삭감은 확정적인 반면 정년연장의 경우 반드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 지 미정이다. 확정적 불이익과 불확정적 이익을 동일 선상에 두고 상계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수소샘 H2·Dispenser®

이게 뭐야?
라고 묻는 사람과
수소수 디스펜서!
라고 답하는

작고 강력한 스마트 수소수기
수소수 디스펜서
SHD-100

수소수 디스펜서 검색

컬러 와인 / 그레이 중 선택

깨끗한 물과 수소의 만남_내 몸을 웃게 하는 차원이 다른 수소수를 경험하세요!

솔고 수소수 발생기만의 수소용존 혁신기술

특허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은 물(H_2O)에서 산소(O_2)와 수소(H_2)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분리하여 수소를 물분자 사이에 강력하게 분산, 용존시키는 솔고 수소수 생성기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24시간 무료상담전화 080-600-2020 대리점 및 기술이전 문의 1588-0275 | www.arambi.kr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2014-서울중구-0505호

제일모직, 통합 삼성물산 출범 직전 '반등'

주총 이후 양사 30% 이상↓
24일 연저점 찍은 후 상승세
3개월 뒤 재무제표 발표 변수

통합 삼성물산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일모직 주가가 상승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당초 합병안이 통과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란 투자업계의 예상을 뒤엎고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공식 출범을 앞두고 주가가 반등하면서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전날 대비 1만2500원(7.55%) 오른 17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 상장을 앞둔 27일, 전일보다 2200원(5.02%) 상승한 4만8100원의 거래를 끝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지난 25일 상승세로 돌아서 최근까지 각각 32.83%, 5.02% 올랐다.

앞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 등에 문제를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일부 소액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추진,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양사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회수가 이어지면서 주가는 큰 폭 하락했다.

이에 지난 24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나란히 연저점을 찍었다. 제일모직 주가는 합병 이슈로 크게 오른 지난 7월16일 종가기준 19만4000원에서 지난 24일 13만1000원까지 32.47% 하락했다. 삼성물산도 7월16일 6만9300원의 마감가를 기록한 이후 지난 24일 4만4500원까지 35.78% 역주행했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일모직 주식 1455억원 어치, 삼성물산 주식 3390억원 어치를 팔아 치웠다. 같은 기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시가총액도 각각 6조4800억원, 3조8742억원이 줄어들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9월1일 합병해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새로 상장한다. 제일모직이 존속 법인이고 삼성물산이 소멸 법인이지만 통합 사명은 삼성물산이 된다.

통합 삼성물산 주식수는 보통주 기준 1억8969만45주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54%의 지분을 가져 최대 주주가 되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51%)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 부문 사장(5.51%), 이건희 회장(2.86%) 등 총수 일가는 30.4%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통합 삼성물산 주가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 주가가 최근 약세를 보인 데에는 합병주총 이후 단기적인 수급 요인이 컸다"며 "통합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신규 투자가 유입될 수 있고 건설과 패션부분의 실적도 올해 4분기부터 개선될 전망이어서 주가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후 시너지효과는 제일모직을 중심으로 수차례 언급돼 왔다"며 "통합법인이 출범했다고 해서 주가가 급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다만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합병 3개월 후 발표되는 통합 재무제표 결과에 따라 모멘텀(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통합 삼성물산 목표가를 25만원으로 제시하고 "통합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각사의 실적 추정치와 자산·영업가치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계산해 목표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제일모직은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으로 출범하고 2일에는 첫 이사회를 열어 의장을 선출한다. 이어 서초사옥에서 통합 삼성물산 출범식이 개최된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하이투자證, 40억 규모 ELS 2종 공모

하이투자증권 오늘부터 4일 오후 1시까지 ELS 2종을 총 4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HI ELS 899호는 KOSPI200 지수,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85%(12개월,18개월, 24개월), 80%(30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00%(연 6.00%)의 수익을 지급한다.

HI ELS 900호는 KOSPI200 지수,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18개월), 85%(24개월, 30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2.50%(연 7.50%)의 수익을 지급한다.

두 상품 모두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투자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만기 시에 최초 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이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하이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1588-7171)로 하면 된다. /김보배 기자

증권 마감시황

코스피, 美 금리 '불확실성' 이겨냈다

연기금 4일간 2000억 매수
제일모직·현대차 등 올라
1940선 회복 상승세 유지

코스피가 연기금의 매수에 힘입어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간 31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코스피가 31일 연기금의 매수에 힘입어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3.82포인트(0.20%) 오른 1941.49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 전거래일보다 3.55포인트(0.18%) 하락한 1934.12로 출발했다.

지난 29일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물가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상설'이 다시 고개를 들며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켰다.

1930선에서 약보합세를 보이던 코스피지수는 장 후반 외국인의 매도 규모 감소와 연기금의 매수세에 힘입어 1940선을 겨우 회복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356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특히 연기금은 2416억원 어치를 사들이는 등 4거래일 연속 2000억원대의 매수세를 유지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6억원 어치와 387억원 매도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다. 섬유·의복(5.88%), 운수창고(2.15%), 운송장비(2.04%), 의료정밀(0.75%) 등은 오른 반면 증권(-3.11%), 전기가스업(-1.83%), 비금속광물(-1.69%), 종이·목재(-1.22%) 등은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하루 앞둔 제일모직이 7.55% 상승했고, 삼성전자(0.74%), 현대차(3.47%), 현대모비스(2.48%), 기아차(2.31%), SK텔레콤(0.41%) 등도 올랐다.

반면 한국전력(-2.44%), SK하이닉스(-2.98%), 아모레퍼시픽(-0.13%), 삼성에스디에스(-0.19%)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0.85포인트(0.12%) 내린 687.11로 마감됐다. 지수는 1.94포인트(0.28%) 오른 689.90으로 출발해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닷새만에 약세를 나타냈다.

개인은 507억원 어치를 사들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6억원과 242억원 어치를 내다 팔았다.

시가총액 상위 가운데 바이로메드(4.91%), 파라다이스(5.56%) 등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9원 오른 1182.5원으로 마감했다.

상장사 22곳 1억4300만주 보호예수 해제

상장사 22곳의 주식 1억4300만주가 9월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풀린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1억2000만주(6곳), 코스닥시장에서 2300만주(16곳)의 물량이 각각 의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이는 지난달(8200만주)에 비해 73.9% 증가한 물량이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사 부채비율 123.08% 지난해 말보다 2.4%p 하락

올해 상장사들의 부채비율이 소폭 하락했다.

31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620개사의 올해 상반기 말 현재 부채비율은 평균 123.08%로 지난해 말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서 산출되며,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조사 대상 기업의 상반기말 현재 부채총계는 121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26% 증가했고, 자본총계는 986조1448억원으로 3.15% 증가했다.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곳은 전체의 56.1%인 348개사였고, 200%를 초과한 곳은 105개사로 16.9%였다.

신한銀 '金테크' 하라더니… 39억원 손실

금값 하락에 마이너스 수익
전문가, 원금손실 변수 경고

골드뱅킹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금' 관련 금융상품에서 상당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에 금 관련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38억5500만원의 손실을 냈다.

신한은행이 금 관련 상품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연간 683억8100만원의 수익을 달성했지만 지난해에는 총 181억700만원의 마이너스 수익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3년 11월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골드뱅킹을 선보였다. 당시 정부가 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금 관련 상품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고 신한은행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골드뱅킹 시장 선점에 나섰다.

골드뱅킹은 은행 고객이 계좌에 넣은 돈을 바탕으로 금 시세와 환율 등을 고려해 금을 통장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을 1g 단위로 환산해 통장에 기재하고, 돈을 찾을 때는 금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이자 자체는 전혀 없지만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다.

골드뱅킹은 골드바 등 현물 매매보다 수수료가 낮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은 2008년, 우리은행은 2012년에 골드뱅킹 시장에 뛰어 들었다.

국내 금 시세는 지난 2월 3일에 1g당 4만5369.66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4만3127.97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특히 지난 7월22일엔 4만603.26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최근 금 값이 하락하고 재태크족의 '금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전문가들은 골드뱅킹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경고하며 투자자들에게 신중할 것을 조언해왔다.

골드뱅킹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수료다. 우선 금을 살 때 기준 가격보다 1% 높게 사고, 팔 때는 기준 가격보다 1% 낮게 판다. 최소 2%의 수익을 남길 경우 본전이다.

골드뱅킹은 '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뿐더러 5단계로 분류되는 금융투자상품 가운데서도 두 번째로 높은 '고위험'에 해당된다. 더욱이 수익금이 발생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지만 잃을 경우 세금혜택은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테크 상품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최소 2.3%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본전"이라며 "꼼꼼히 따져본 이후 금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원터치 송금

KB국민은행

KB간편송금 서비스 출시
하루 최대 50만원까지

KB국민은행은 31일 지인의 결혼, 생일 등 기념일에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KB간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지인의 계좌번호가 없이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수취인은 지인이 보내온 송금정보 메시지를 누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스마트OTP를 발급받으면 KB스타뱅킹에서 하루에 최대 5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스마트 OTP는 모바일뱅을 이용할 때 OTP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카드만 갖다 대도 거래를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고객에게 더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해외서 신용카드 '하루 286억' 긁었다

상반기 21.7%↑ '사상최대'

올해 상반기에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재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6월까지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하루 평균 2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1.7%나 증가했다.

이는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다.

특히 해외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율도 지난 2010년 하반기에 26.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다.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금액 증가율은 5.4%에 불과했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해외여행자가 구입한 휴대품에 대한 1인당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해외로의 출국자 수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받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의 내국인 출국자는 761만명으로 올해 상반기(915만명)보다 20.2%나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의 결재금액 증가세는 원화가치 하락으로 올해 하반기에 한 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4~5월에는 1100원 선을 밑돌았지만 이달 중순 들어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1100원대 후반까지 올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출국자 수보다 환율 변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만큼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생보재단, 경북지역에 농약안전보관함 70개 전달

(왼쪽부터)장준현 김천 대덕면 연화1리 이장, 이정배 새마을지도사, 이진화 김천시의원, 정만복 김천시 부시장,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 염혜정 한국자살예방협회 팀장이 31일 생명보험재단이 경북 음독자살 제로를 위해 농약안전보관함을 전달하는 자리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31일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연화1리 마을회관에서 경북 지역의 음독자살 예방을 위해 70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농촌 노인들의 충동적인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는 보관함을 각 가정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농촌 노인의 음독자살을 막기 위해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생명사랑 녹색마을' 선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30개시군, 106개 마을, 4,350개 농가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했으며 농약안전보관함이 보급 후 음독자살이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는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재단에서 보급한 농약안전보관함이 우리나라 자살률 감소에도 기여하고 농촌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IBK기업은행 신입행원 200명 모집

IBK기업은행은 올해 하반기에 일반과 IT분야의 신입행원 200명을 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탈(脫) 스펙'을 지향하기 위해 입사지원서의 어학점수와 자격증 기재란을 없애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평가를 강화한다.

입사지원서 접수기간은 9월 9~24일까지며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실무면접과 최종면접을 거쳐 11월 말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무면접에는 입사지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1박2일간(합숙) '열린 면접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자들이 본인의 역량과 열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면접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실무면접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 전형 신청자들의 자기 홍보(PR) 대회인 '당신을 보여주세요'도 진행한다. 자신만의 강점과 잠재력 등을 4분간 자유롭게 홍보하면 된다. 우수자는 서류전형에서 우대를 받는다. 자기 PR대회 참가신청은 9월 16일까지다. /김보배 기자

건설업계, 빛 바랜 해외매출 세계 5위

총 379억6천만달러 기록 獨 제치고 5년새 두계단↑

세계 점유율은 지속 하락 중동지역 中에 1위 내줘

< ENR 2014년 매출기준, 해외건설시장 국가별 순위 >

(단위 : 억불, %, 개)

구 분	중국	스페인	미국	프랑스	한국	독일	이태리	터키	일본
'14년 매출	896.8	684.1	594.0	513.7	**370.6**	338.4	299.2	292.8	218.1
점유율	17.2	13.1	11.4	9.8	**7.1**	6.5	5.7	5.6	4.2
기업수	65	11	32	5	**12**	4	15	43	14

/국토교통부 제공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매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5위 권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통적 강세를 보였던 중동지역 매출이 중국에 밀리는 등 해외매출이 줄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미국 건설 전문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이 최근에 발표한 국가별 해외건설시장 매출액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5위를 기록했다.

ENR은 미국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지로 매년 8월에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250대 건설사의 실적과 순위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해외에서 총 370억6000만 달러(전세계 250위권 내 국내 12개 기업 실적 합산)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독일(338억4000만 달러)을 넘어선 규모다. 앞서 우리나라는 2010년과 2011년 7위, 2012년부터 2년 연속 6위를 기록했다.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해외사업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별 순위는 상승했지만 전세계 점유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전세계 해외매출 점유율은 지난 2012년에 8.1%를 보였지만 이후 2013년에는 7.8%, 지난해에는 7.1%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경쟁 상대인 중국의 건설사는 최근 10년 사이에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중국은 지난해 해외에서 896억8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스페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점유율도 지난 2002년 6.1%(7위)에서 12년 만인 지난해 17.2%로 무려 3배가량 성장했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4%대 성장에 그쳤다.

중국은 최근 5년 사이에 세계 250대 건설사에 이름을 올린 건설업체 수도 늘었다. 지난 2010년에는 51개였지만 지난해에는 65개까지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개의 건설사들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는데 그쳤다.

세계 주요 국가별 순위에서도 우리나라 업체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게 중동지역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줬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17.3%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점유율이 8.5%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2년(29.2%) 점유율의 반토막 수준이다.

중국은 반대로 2012년 10.2%, 2013년 16.4%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9.2%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른 지역의 점유율 격차는 더 크다. 중국은 아시아(20.5%), 아프리카(49.4%)에서 1위를 차지했다. 중남미에서는 12.9%의 점유율로 4위를 마크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11.8%)에서 4위, 아프리카(5.4%)에서 5위, 중남미(4.0%)에서 7위를 기록했다.

신삼섭 해건협 실장은 "중국의 경우 국내 대형공사를 발판으로 해외에서도 최근 두각을 보이고 있다"며 "일부 기술의 경우 우리나라를 추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플랜트, 가스처리, 해양플랜트 등 현재 우리가 기술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진출지역 다변화, 정책금융지원센터를 활용한 금융지원, 수주지원 외교활동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건설사의 올해 이달까지의 해외 수주액은 330억212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지난 주말 '힐스테이트 세종 2차'(왼쪽)와 '힐스테이트 황금동'의 견본주택에 방문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현대건설 제공

세종·대구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인산인해

총 6만명 이상 다녀가

현대건설이 세종시와 대구에서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세종 2차'와 '힐스테이트 황금동'의 견본주택에 방문자가 몰리고 있다.

31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 28일 개관한 '힐스테이트 세종 2차'의 견본주택에 지난 주말 동안 약 2만7000여명이 방문했다.

총 1631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중앙행정타운과 근접해 있고 중심상업지역인 2-4 생활권에 인접해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간선급행버스(BRT) 노선과 KTX 오송역을 활용해 세종시 주요지역과 대전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또 같은 날 개관한 '힐스테이트 황금동' 견본주택에도 사흘간 3만4000명 이상이 다녀갔다. 이 단지는 대구지역 최고 학군인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는 경북 명문고인 경신고, 경북고, 정화여고 등이 위치해 있다. 총 782가구 중 일반분양은 281가구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두 단지 모두 뛰어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청약접수와 계약에서도 수요자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세종 2차'의 견본주택은 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에 마련됐다. '힐스테이트 황금동' 견본주택은 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94-1번지(궁전맨션 맞은편)에서 운영되고 있다.

/김형석 기자

SK건설, 해외현장 무재해 신기록 달성

사우디서 1억 인시 돌파

SK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와싯(Wasit)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1억 인시(人時)를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현장에서 세운 역대 무재해 신기록이다.

무재해 인시란 공장을 운전하는 구성원 전체와 무재해 근무시간을 합산한 수치다. 이를 위해서는 공장가동에 따른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없어야 한다. 무재해 1억 인시를 기록하려면 1000명의 근로자가 매일 10시간씩 27년5개월 동안 사고 없이 공사를 진행해야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걸프만 해안지역에 22억 달러 규모의 대형 가스플랜트를 짓는 공사다. SK건설은 지난 2011년 2월에 착공했다. 준공은 2016년 6월 예정이다.

SK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와싯(Wasit) 가스플랜트 프로젝트에서 무재해 1억 인시(人時)를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교통사고 방지와 전직원의 교통규칙 숙지를 위해 트래픽 캠페인(Traffic Campaign)을 진행하고 있다. /SK건설 제공

현장에서는 하루 최대 1만5000명이 투입되고 500여대의 차량과 장비가 활용된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SK건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중이다. 먼저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평가해 매주 등급별 깃발을 수여하는 플래그 시스템(Flag System)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현장 내 교통사고 방지와 전직원의 교통규칙 숙지를 위해 벌이는 트래픽 캠페인(Traffic Campaign) ▲근로자의 전염병 예방과 열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강재준 SK건설 부문장은 "고도의 안전관리 역량과 현장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극복하고 이룬 값진 대기록"이라며 "무재해 준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송파 법조타운 푸르지오시티' 견본주택 4일 개관

대우건설은 오는 9월 4일 '송파 법조타운 푸르지오 시티'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2번지(8-1블록)에 위치한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3층,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17~48㎡ 총 619실로 구성됐다. 이 오피스텔이 위치한 문정지구는 54만㎡ 규모에 공공행정지원시설과 미래형 업무단지가 들어서는 서울 동남권 최대 복합업무단지다. 동부지방법원(2016년)과 동부지방검찰청(2017년) 등 행정시설과 한샘, 대명그룹 등 일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하철8호선과 위례신사선 법조타운역(예정)을 이용할 수 있다. KTX수서역(2016년 8월 예정)과 송파IC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때마다 결함

갤럭시 노트5, 출시 2주 만에 S펜 결함 발견
S6엣지도 터치결함·밴드게이트 논란 휩싸여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6엣지와 갤럭시노트5 등에서 잇따라 결함이 발견되면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6s 한국 출시일이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한 갤럭시노트5는 출시된 지 2주만에 결함이 발견됐다.

31일 해외 IT매체 안드로이드 폴리스는 갤럭시노트5에 S펜을 거꾸로 꽂는 실험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펜은 부드럽게 들어가지만 한 번 들어간 이후엔 아무리 애를 써도 빠지지 않았다. 심지어 단말기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모습이다.

매체는 S펜을 거꾸로 꽂을 때 아예 들어가지 않거나 억지로 힘을 줘서 넣어야 했던 이전 노트 시리즈와 다른 부분이라며 "어째서 삼성 테스트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일반 사용자들이 S펜을 거꾸로 꽂는 일은 드물것으로 보이지만 어린 자녀들의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거꾸로 꽂을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S펜을 거꾸로 꽂더라도 보상받기는 힘들다.

갤럭시노트5

삼성전자는 사용설명서에 'S펜을 펜촉부터 밀어 넣지 않으면 삽입구에 S펜이 끼일 수 있고, 무리한 힘을 주어 S펜을 빼낼 경우 S펜과 제품이 손상될 수 있다'고 써놨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로 서비스센터에 방문해도 고객과실로 처리된다는 의미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S6 엣지의 디스플레이 외곽에서 터치 인식이 되지 않는 터치 결함 현상과 밴드게이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제품 결함과 애플의 아이폰6s 한국 출시일이 다가오면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신제품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하반기 전략스마트폰 출시에도 애플과 경쟁심화로 스마트폰사업에서 크게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도체사업의 실적개선도 다음해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유의형 동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아무리 잘 만든 제품이어도 더 이상 고가제품이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유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스마트폰 시장성장 둔화로 삼성전자가 당분간 스마트폰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LG, 편의성 강화한 드럼세탁기 선봬

창문 내고 통돌이 달고
기능성 강화 초점 맞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드럼세탁기 신제품을 각각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31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드럼세탁기 신제품 '버블샷 애드워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제품은 도어 상단에 작은 창문인 '애드윈도우'를 적용해 세탁 중에도 세탁물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세탁, 헹굼, 탈수 등 작동 중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애드윈도우'를 열어 세탁물을 넣고 다시 작동시키면 된다. 또한 캡슐형 세제나 시트형 섬유 유연제 등 세제와 세탁보조제도 '애드윈도우'를 통해 투입할 수 있다.

'버블샷 애드워시'는 17·19·21kg(세탁기준)의 세 가지 용량으로 출고가는 169만9000~249만9000원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초 애벌빨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빌트인 싱크'를 장착한 '액티브 워시'를 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버블샷 에드워시(왼쪽)와 LG전자의 트롬 트윈워시. /삼성전자·LG전자 제공

LG전자는 지난 7월 분리세탁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공략한 '트롬 트윈워시'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드럼세탁기 하단에 통돌이 세탁기를 결합했다. '트롬 트윈워시'는 세탁기 두 대 가운데 한 대만 사용하거나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하단의 '트롬 미니워시'는 별도로도 구매가 가능하며 기존에 사용 중인 LG 드럼세탁기와 결합해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트롬 트윈워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분리세탁, 동시세탁, 공간절약, 시간절약 등의 편의성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트롬 트윈워시'의 드럼세탁기 세탁용량은 17·19·21kg 등 세 가지다. '트롬 미니워시'는 3.5kg이다. '트롬 트윈워시' 출하가는 230만~280만원대, 하단의 '트롬 미니워시' 출하가는 70만~80만원대다.

업계 관계자는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달라졌다"며 "예전에는 용량을 늘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신제품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기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

"국세청이 국감 증인 채택 철회 요구중"

野 "삼성 SDS 사장 증인 신청에 국세청 발 벗고 나섰다"

야당이 삼성SDS 사장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하자 국세청이 증인 체택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올해 국정감사 증인 신청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개편사업'의 수주업체인 삼성SDS 사장 증인을 신청한 데 대해 국세청이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삼성SDS 사장 등 6명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세청이 삼성SDS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 방위로 나서고 있다"며 "자사 사장의 증인 채택을 피하고자 기업이 나서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가 기업인 증인 채택을 철회시키기고자 전 조직을 동원해 발벗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담당 실무진부터 각 국장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국세청 기획조정관 서모 국장은 '삼성SDS 사장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이라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TIS는 국세청이 총사업비 2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국세청 통합 전산시스템이다. 올해 2월 오픈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거나 일선 세무서의 체납 관리, 세수 집계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운전면허증과 카드 영수증 등 납세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고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감사와 증인 채택에 대해 피감기관인 국세청이 국정감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국정감사를 방해하면서까지 대기업을 감싸는 저의가 무엇인지, '책잡힐 일'이 무엇이 있는지 송곳 검증을 통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삼성SDS 측은 "TIS 사업에 관심을 가진 의원실에 설명했던 적은 있다. 국세청의 국정감사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LG전자, 파격프로모션으로 올레드TV 대중화

LG전자가 파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올레드 TV 대중화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판매점에서 '특별가 체험이벤트'를 벌인다. 이 행사의 대상은 올레드 TV, 슈퍼 울트라HD TV, 울트라HD TV 등 프리미엄급 제품 30여 종이다.

특히 최고 프리미엄 제품인 올레드 TV의 혜택은 파격적이다. 행사기간에는 소비자들이 캐시백, 카드할인 등 특별가 혜택을 적용한 55형 올레드 TV(55EC9310)를 339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55형 울트라 올레드 TV는 특별가 혜택을 적용하면 곡면디자인(55EG9600)과 평면디자인(55EF9500)이 각각 490만원, 450만 원이다. 현존하는 최고화질의 울트라 올레드 TV의 인치당 가격이 처음으로 10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 올레드 라인업 중 최대 크기인 77형 울트라 올레드 TV는 특별가 혜택만 400만 원에 달한다.

/양성운 기자

'LG 워치 어베인 럭스' 500개 한정판매… IFA서 첫 공개

LG전자는 오는 4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5'에서 'LG 워치 어베인 럭스'를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LG 워치 어베인 럭스'는 'LG 워치 어베인'의 럭셔리 에디션으로 전문 세공인들이 약 50단계의 공정을 거쳐 23K 금을 시계 몸체에 입히고 고급 악어가죽 스트랩을 적용했다. 고급스러움을 더하기 위해 은은한 광택에 세련미를 더한 고급 원목 케이스로 포장했다.

LG전자는 이 제품에 고유의 시리얼 번호를 새겨 500개 한정판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LG 워치 어베인 럭스'는 10월 말부터 미국 쥬얼리 체인인 '리즈 주얼러스'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리즈 주얼러스'는 9월 말부터 공식사이트(www.REEDS.com)와 미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이철훈 LG전자 MC사업본부 마케팅커뮤니케이션FD 상무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스마트워치 제품을 지속 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 워치 어베인 럭스'의 소비자 판매가는 약 1200달러다. /임은정 기자

SKT, IFA 첫 참가… '스마트홈' 선뵌다

IFA 2015

단독부스서 153㎡ 규모 전시 가전기업들과 제휴 추진도

SK텔레콤이 전 세계 150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IFA(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2015'에 첫 참가한다. TV와 백색가전, IT(정보기술)기기 등 주로 가전 분야 첨단 제품들이 출품되는 글로벌 전시회인 IFA에 국내 이동통신사가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텔레콤은 IFA에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홈과 라이프웨어 제품을 중점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31일 SK텔레콤에 따르면 IFA 2015에서 단독부스를 마련해 153㎡규모의 전시관을 차린다. SK텔레콤과 같은 홀 주변에는 도이치텔레콤과 알카텔 등 유럽 통신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서비스.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은 이번 IFA 행사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안의 각종 기구들을 제어하는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서비스와 제품들을 전시한다. 이외에도 커머스 플랫폼 '스마트쇼퍼', 'UO(United Object)스마트빔 레이저', 'UO링키지' 등 IoT와 라이프웨어 제품을 선보인다.

업계에선 지난해 IFA에 이어 올해 CES에서 강조된 IoT가 이번 전시회에서 얼마 만큼 가전에 접목되는가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하나로 다양한 홈기기들을 개별 또는 통합적으로 제어해 "편리하고 안전하면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홈"을 만들어주는 오픈 스마트홈 플랫폼이다. SK텔레콤 측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홈 플랫폼과 함께 향후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선순환적 생태계 확산 및 개개인에 최적화된 인텔리전트 시스템으로 스마트홈 서비스를 진화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쇼퍼는 카트 없이 쇼핑하는 플랫폼이다. UO는 SK텔레콤의 라이프웨어 브랜드다. 액세서리로 통칭하던 스마트폰 연동 액세서리를 라이프웨어로 재분류했다.

라이프웨어 제품은 통신과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로 통신업계의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품은 스마트빔 레이저(초소형 피코 프로젝터), 링키지(무선 스피커) 등 오디오 영상 기기부터 스마트밴드(웨어러블), 에어큐브(소형 공기오염도 측정기), 스마트골프(볼마크형 초소형 골프 거리측정기), 펫핏(반려견용 헬스케어 기기), 알버트, 아띠(스마트로봇) 등 종류도 다양하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IFA 전시 참가를 통해 스마트빔을 비롯한 다양한 UO 제품들을 유럽 시장에 첫 선을 보이게 됐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UO 제품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글로벌 유통업체와 가전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내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SKT "스마트폰 '루나' 예약가입하세요"

SK텔레콤은 'TG앤컴퍼니'가 제조한 스마트폰 '루나'(LUNA)를 다음달 4일 단독 출시하기로 하고 1일 오전 9시부터 예약 가입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TG앤컴퍼니는 TG삼보컴퓨터의 관계사다.

루나는 국내에서 출시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 처음으로 기기 전체에 메탈 유니바디를 적용했다. 풀HD 디스플레이, F1.8 조리개의 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3GB 램(RAM) 등을 갖췄다. T월드 다이렉트(www.tworlddirect.com)나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출고가는 40만원대로 책정될 전망이다. 예약 가입 신청기간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3일까지다.

SK텔레콤은 '루나' 예약가입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예약 가입한 후 9월 10일까지 개통을 완료한 고객의 경우 별도 프로모션 사이트 참여를 통해 5000mAh 용량의 보조베터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구매 고객 중 선착순 5만명에게 ▲SK텔레콤의 'T매니아' 서비스 3개월 무료 ▲구글 플레이스토어 1만원 청구할인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문경 기자

30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모델들이 '루나' 단말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플래닛, O2O 마케팅 '시럽 스토어' 공개

SK플래닛이 O2O(온·오프라인 연계) 커머스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는 통합 O2O 마케팅 솔루션 '시럽 스토어'를 31일 공개했다.

시럽 스토어는 SK플래닛이 지난 1년간 전국 약 4만1000여곳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공해 온 '시럽 비콘 서비스'의 노하우를 통해 점주가 직접 고객을 모으고 매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O2O 마케팅 관련 통합 솔루션이다.

점주들은 시럽 스토어를 통해 기존 방식 대비 훨씬 효율적으로 매장의 홍보나 마케팅, 세일즈 프로모션 등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미리줌(포인트 선지급) ▲시럽광고(상권전단) ▲저전력블루투스(BLE) 홍보 ▲포인트 마일리지 ▲멤버십카드 등 10여 가지의 O2O마케팅 상품 중 점주가 매장 상황에 맞는 필요한 상품들만 선택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솔루션에서 진행한 마케팅 활동들에 대해서 단골 고객 수 증가율, 쿠폰 이용률, 매장 방문율 등 총 29개 항목에 대해 시행 후 변화를 측정해 제공한다. /정문경 기자

공기측정기 'UO에어큐브' 5만대 中 수출

SKT, 3년간 공급 체결

SK텔레콤은 중국 공조기 전문회사인 에어커스텀과 휴대용 공기측정기 'UO에어큐브' 5만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중국 선전의 센토사호텔에서 에어 커스텀사와 휴대용 공기 측정 제품인 'UO에어큐브' 수출에 대한 계약을 맺고 3년 동안 총 5만대를 중국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에어커스텀은 중국 선전시 첸하이 자유무역구에 있는 신생 벤처기업이다. 지난 7월 상하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UO에어큐브를 보고 SK텔레콤에 구매 의사를 표시했다.

작년 12월 출시된 UO에어큐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실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수출제품에는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 센서와 소음 측정 센서를 추가하는 등 성능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

에어 커스텀과 같이 기능 결합 상품을 준비하게 된 UO 에어큐브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며 전망을 더욱 밝게 했다고 SK텔레콤 측은 설명했다.

박철순 SK텔레콤 컨버전스사업본부장은 "현지 기업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SK 텔레콤의 라이프웨어가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박철순 SK텔레콤 컨버전스사업본부장(오른쪽)과 에어 커스텀의 리시 동사장이 31일 중국 선전의 센토사호텔에서 UO 에어큐브 수출입 계약식을 체결했다. /SK텔레콤 제공

LGU+, 개방형 영상플랫폼 사업 추진

1인 개인방송 확대 등 폭 넓은 영상 서비스

LG유플러스는 보안을 중시하는 영상 서비스에서 벗어나 '1인 미디어' 시대에 맞는 개방형 영상 플랫폼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CCTV 맘카, LTE 블랙박스 영상서비스 제공 등 보안과 안전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에서 LTE 생방송, LTE 드론, 모바일 개인방송까지 LG유플러스의 영상 서비스 영역이 확장된다.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여러 사람에게 실시간 방송하는 'LTE 생방송 서비스'를 영상 플랫폼과 연동할 계획이다. 개인 영상촬영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도 공개한다.

아울러 개인이 드론(무인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LTE 드론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영상 서비스는 가정용 CCTV 등 보안 중심이었다"며 "앞으로는 개인 영상 촬영 서비스가 활발해지도록 LTE 기반의 개방형 영상 플랫폼으로 사업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프리미엄/수익형상가

소액투자 수익형 상가

남양주시 별내 택지지구내 상가로써 분양면적 780㎡전용면적 440㎡의 상가. 현재 보증금 1억원에 월 600만원의 임대 수익이있다. **급매가 11억** (수익률 년 7.2%) 현금3억원매수가능, 소액투자자한테 적합한상가.

경기도 의정부시 신세계백화점 앞 빌딩

의정부 민자역사 신세계백화점 입구에 위치한건물 대지 340㎡ 연면적 1100㎡ 현재 보증금 2억9천, 월 1700만원 임대료발생, 전층 근생업종이 입주해있고 의정부 핵심 상권인 신세계백화점 입구에위치 유동인구 최고의 상권임. **매매가 45억원**

핫! 이슈

홍익대학교 임대용 빌딩

홍대 메인 상권에 위치한 임대수익용 빌딩으로써 대지면적 510㎡ 연면적 270㎡의 부동산이다. 현재 보증금 3억원에 월 3,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급매가 72억원

종로대로변 임대용빌딩

1호선 동묘역 출구 대로변코너에 위치한 건물로써 대지 540㎡ 연면적 1800㎡의 건물로써 병원등 우량한 임차업종이 입주해있다. 현재 보증금 9억원에 월 4,000만원의 임대수익이있다.
매매가격 95억원

강동구 임대용빌딩

강동구 상업지역에 입지한 건물로써 대지면적 610㎡ 연면적 3,300㎡의 건물 현재 보증금 8억원에 월 약6,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전층 병원 및 유명 프렌차이즈등이 입주해있으며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원하는 투자자한테 적합한 매물이다.
매매가격 120억원

2호선 강남역빌딩

국내 최고 상권인 2호선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 대기업등의 업무시설,어학원 및 근생시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으로 대지면적 340㎡ 연면적 2,000㎡ 근생건물이다. 현재 보증금 8억 6,000만원 월 7,8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매매가격 150억원

논현역 대로변 빌딩

7호선 논현역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으로써 대지면적 490㎡ 연면적 1,600㎡의 빌딩으로써 현재 보증금 3억2,000만원 월 3,100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한다.
성형외과, 피부과등의 병원, 또는 사옥용으로 적합한 매물이다.
매매가격 105억원

의정부시 을지대 병원앞 빌딩

현재 최고의 지기 상승 및 미래가치가 보장된 **을지대학교 신축부지앞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로써 대지면적 605㎡ 연면적 1200㎡의 임대용 건물이다. 보증금 2억원 월 1200만원의 임대 수익이발생. 향후 을지대학교및 부속병원이 완공될시 최고의 상권으로 급부상이 기대된다. 전층 근생업종 입주. **급매가 36억원**

길동역, 대수선용빌딩

길동역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 대지면적 720㎡ 연면적 2,200㎡의 건물 현재 보증금 5억4,000만원 월 4,000만원의 임대수익이있다. 외벽 및 실내를 대수선 공사 완료시 보증금 7억5,000만원, 월 5,700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된다.
매매가격 110억원

2호선 봉천역출구 사옥 및 병원용빌딩

대지면적 530㎡연면적 2,000㎡의 건물로써 **2호선 봉천역 출구 대로변 코너에 위치.** 사옥, 또는 병원등에 적합한 건물이다. 현재 보증금 3억8,000만원에 월임대료 3,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매매가 80억원

문의전화 : 02)557-1027 / 010-5273-3985
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주) 박세민

프리미엄·역세권 / 빌딩·상가 매매

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주) 박세민 **문의 : 010-9000-1782**

역삼역 역세권 수익용 신축빌딩

역삼역 3분거리 유동인구가 많은 메인상권에 위치한 수익용빌딩이다.
대지 520㎡, 건물 2,000㎡, 지상10층이며 보증금 6억5,000만원, 월수익 6,400만원이 나온다. 신축건물이며 우량한 임차인구성으로 공실이 없으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해준다. 매매가는 150억이다.

신논현역 메인상권 수익용 근생빌딩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 메인상권 코너에 위치한 수익용 근생빌딩이다.대지 440㎡, 건물 1,600㎡, 지상6층 빌딩이며 보증금 6억4천만원에 월수익 6,500만원 정도다. 코너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좋고 모든 임차업종이 근생으로 이루어져 공실염려가 전혀 없는 빌딩이고 매매가는 165억이다.

청량리 초역세권 대로변 급매각 빌딩

청량리역 앞 대로변 위치하여 가시성 및 접근성이 좋은 임대용 급매빌딩이다. 대지 420㎡, 건물 1,100㎡, 지상5층이며 보증금 5억에 월수익 2,500만원 정도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개발호재 등 투자가치가 있는 빌딩이다. 매도인 사정상 급매로 진행하며 매입 후 임대관리 및 향후 신축시 수익성 및 투자가치를 급상승 시킬 수 있는 빌딩이고 매가는 58억이다.

역삼역 임대수익용 빌딩

역삼역 1분거리에 위치한 공실없는 임대수익용 빌딩이다. 대지 500㎡, 건물 1,250㎡, 지하1층 지상4층 근생빌딩임. 주변 프랜차이즈 식당 및 커피숍 등이 즐비한 활성화된 상권에 입지하였다. 보증금 4억 월수익 2,900만원이며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건물 상태는 최상이며 매가는 72억이다.

논현역 출구 앞 강남대로변 신축빌딩

논현역 출구 바로앞 광대로변에 위치한 수익용빌딩이다. 대지 370㎡, 건물 2,850㎡, 지상10층이며 보증금 약14억에 월수익 8,200만원 정도이다. 피부과, 치과, 성형외과 등 메디컬 위주로 임차가 이루어져 있으며 매가는 220억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동시에 향후 분당선 연장개발로 인한 투자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희소성있는 특A급 빌딩이다.

대치동 사옥 겸 임대수익용 빌딩

삼성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사옥 및 임대용 빌딩이다. 대지 440㎡ 건물 1700㎡, 8층 건물이며 주변에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현재 일부 사옥을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학원 등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사옥으로 사용 할 수도 있고 전체 임대수익용 빌딩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수익률은 5%정도이며 매가는 110억이다.

강남역이면 구조조정 임대용 빌딩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 테헤란로 바로이면에 위치한 법인 구조조정 임대용빌딩이다.
대지 350㎡ 건물 2,000㎡ 지상10층 빌딩이며 현재 공실은 없으며 월수익 5200만원이고 수익률은 5.5% 정도이다. 법인 소유의 빌딩으로 사정상 주변 거래시세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매가는 110억이다.

고수익용 분양상가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위치한 분양상가 건물이다.분양면적 780㎡이며 현재 스크린골프업체가 보증금 1억에 월세 700만원으로 장기임차 중에 있다. 수익률은 8%이상이다. 주변지역이 정비되어감에 따라 향후 투자가치도 예상된다.

중고차 매매

- **싼타페DM 2륜 프리미엄 13년 1월 크림색**
  완전무사고 썬루프 정품네비 45000km (매매/2600)
- **더 뉴 아반떼 LPI 흰색**
  완전무사고 15년형식 35000km (매매/1160)
- **제네시스 모던 13년 4월 검정**
  완전무사고 네비 후카 1만km (매매/3250)
- **뉴카렌스 GX 최고급형 검정**
  완전무사고 78000km (매매/900)
- **싼타페 CM SLX고급 흰색**
  썬루프 네비 스마트버튼 완전무사고 15만km (매매/1050)
- **더 뉴 아반떼LPI 검정**
  완전무사고 15년형식 47000km (매매/1160)
- **에쿠스 380 프레스티지 검정**
  완전무사고 15년 3월 네비 뒷좌석TV 6천km (매매/8550)
- **그랜져HG 240 검정**
  완전무사고 12년 2월 네비 후카 51000km (매매/2200)
- **카니발R 9인승 12년 7월 은색**
  완전무사고 네비 자동문 VDC 6만km (매매/2040)
- **더 뉴 K9 GDI VIP 14년 11월 검정**
  완전무사고 네비 3천km (매매/6100)
- **스마트 흰색**
  완전무사고 14년 9월 2천km (매매/2330)
- **BMW 520D 12년 5월 검정**
  완전무사고 썬 네비 49000km (매매/4000)

문의 010-2727-5622

현대차, 하반기 공채 모집

오늘부터 신입·인턴 접수

현대자동차는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hyundai.com)를 통해 ▲개발·플랜트 부문의 신입 정기 공개채용과 인턴 채용 ▲전략지원 부문의 신입 상시 공개채용 등 세 부문의 2015년 하반기 채용을 1일 시작한다.

현대차는 이번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과 인턴사원 지원자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소개서에 '개인의 가치관'과 '회사 지원 동기' 항목을 추가했다.

또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인재 발굴을 위해 역사에세이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현대차는 지원자들이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정장을 지양하고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도록 했다.

신입 정기 공개채용 부문에는 4년제 정규 대학 2016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가 지원 가능하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세부 모집 분야는 ▲개발 부문에서 △연구개발(차량설계, 차량평가, 파워트레인, 재료, 기술경영, 상용차개발) △파이롯트 △구매·부품개발 등 총 8개 분야 ▲플랜트 부문에서 △플랜트기술 △플랜트운영 △품질 등 3개 분야 등 총 11개 분야다.

지원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4일 정오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0월 첫째주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인적성검사·역사에세이 전형은 10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전형 합격자는 1차 면접전형에서 핵심역량면접과 직무역량면접, 2차 면접전형에서 종합면접과 영어면접을 거쳐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입사가 결정된다.

신입 상시 공개채용 부문에는 4년제 정규 대학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나 기졸업자가 지원 가능하다.

세부 모집 분야는 △상품전략 △마케팅 △국내영업/서비스 △해외영업 △재경 △정보기술 △경영지원 등 7개 분야다.

이번 상시 공개채용의 서류전형은 14일까지 접수된 상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인적성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검사 등 정기 공개채용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31일 부산 대저동에서 열린 에어부산 신사옥 착공식에서 에어부산 한태근 사장(우측 12번째), 이헌승 국회의원(우측 11번째), 김도읍 국회의원(우측 13번째)과 참석한 기관단체 장 등 내빈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에어부산, 300억 투입 신사옥 착공

내년 말 준공 예정

에어부산(대표 한태근)이 신사옥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에어부산은 31일 부산 대저동 김해국제공항 인근 부지에서 신사옥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에 착수했다.

행사에는 이헌승 국회의원, 김도읍 국회의원, 노기태 강서구청장과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등 주주사 대표와 에어부산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에어부산의 8번째 창립기념일이기도 해 의미를 더했다.

지상 9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질 에어부산의 신사옥은 대지면적 3394㎡, 연면적 1만8302㎡이다.

총공사비 300억원을 투입해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사옥 내부에는 항공사 업종 특성을 감안한 보안시설·승무원 교육, 훈련시설을 포함한 항공사 필수 시설을 갖춰 그동안 외부시설을 빌려 진행해오던 업무들을 대부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

또 현재 3곳으로 분산돼 있는 사무실을 한 곳에 모아 운영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에어부산 측은 밝혔다.

에어부산은 2008년 부산-김포 노선 첫 취항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 국제 18개 노선을 운항중이다.

김해국제공항 최다노선 보유 항공사로 성장했다.

사측은 협력사 포함, 1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로 성장해 사세확장에 따른 신사옥 건립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통합 삼성물산 오늘 공식 출범

4개 부문 대표체제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통합 삼성물산이 1일 공식 출범한다.

31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합병 삼성물산은 당분간 건설과 상사, 패션과 리조트·건설 등 4개 부문의 사업 영역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최치훈 사장(건설), 윤주화 사장(패션), 김신 사장(상사), 김봉영 사장(리조트·건설) 등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또 전사조직을 신설하고 4개 부문의 CEO가 참석하는 시너지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시너지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협업을 강화한다.

삼성물산은 'Global Business Partner & Lifestyle Innovator'를 비전으로 정하고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균형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바이오 사업을 포함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전략이다.

삼성물산은 특히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임은정기자 eunj71@

효성그룹, 3년간 4500명 일자리 만든다

연평균 1500명 씩 일자리 창출할 것

효성그룹이 (주)효성과 9개 계열사에서 2017년까지 3년간 연 평균 1500명씩, 총 45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효성그룹은 올해 상반기, 작년 동기 대비 106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완료해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행해 왔다.

7월부터는 24시간 연속공정으로 가동해야 하는 화학 공장의 특성을 고려,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4조3교대제를 도입해 연간 3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

청년 창업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특성화고와 효성의 전주 탄소섬유 공장 부지에 있는 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1000여명의 청년 사업가 지원을 통한 일자리 해결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효성은 지난해 11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했고, 오는 10월부터 탄소섬유공장 내 부지에 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해 강소기업 20여개를 집중 육성하는 등 2017년까지 탄소소재·농생명·문화산업 등 150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효성은 열린 채용을 통해 청년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벽도 낮출 계획이다.

효성그룹은 그간 신입사원 채용의 지원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해 고졸 및 기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및 가족사항 등 입사지원서의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효성그룹은 10여년 전부터 스펙을 초월해 실제 업무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블라인드면접과 심층면접을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제주항공, 신입·경력직 공개채용

13일까지 원서접수

제주항공(대표이사 최규남)은 각 부문 신입·경력사원 50여명을 채용하는 하반기 공개채용을 1일 시작한다.

채용직종은 항공정비와 운항통제 등 항공전문직과 안전보안, 경영, 전략기획, 영업, 마케팅 등 일반관리직이다.

채용규모는 정비부문에서 약 25명 내외이며, 다른 부문은 약간명씩 모두 50여명을 채용한다.

입사지원서는 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제주항공 채용사이트(recruit.jejuair.net)를 통해 접수한다.

이번 공개채용은 보잉 737-800 항공기 2대의 추가도입 일정에 맞춘 정비와 운항통제 등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기획과 경영부문 등의 인력확충을 위한 채용이다.

모든 직종에서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 우수자와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한다. 자세한 채용기준은 제주항공 채용사이트를 통해 공지된다. 채용은 서류전형과 실무면접,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항공은 올 들어서만 객실승무원과 운항승무원을 비롯한 총 180여명에 대한 채용을 마쳤다. 일반직 사원을 포함하면 총 240여명을 채용했다.

이번 채용으로 올해에만 모두 31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정필 기자

홈플러스 도성환 등 경영진 '배임' 의혹

장부가치 조작 의혹·테스코로부터 고금리 대출
로열티만 매년 700억원… 직원 6만명 월급 수준
도넘은 테스코 챙기기… 형법상 배임죄 적용 가능

홈플러스 도성환(사진) 사장과 경영진이 홈플러스 매각을 앞두고 홈플러스의 이익에 반하면서까지 테스코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홈플러스의 장부가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과 함께 테스코로부터의 고금리 대출, 700억원대 로열티 지급, 1조원대 배당금 계획까지 드러나며 사실상 도 사장과 경영진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는 테스코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대출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올해 2월 28일 기준 총 1조4458억원을 테스코로부터 대출한 상태며 이중 8000억원은 유동성 사채다.

홈플러스가 테스코를 통해 총 4건의 회사채를 발행한 2013년 9~12월 기준 금리는 연 3.65%~3.66%였다.

30일 하이투자 증권에 따르면 당시 회사채의 금리는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으로 3.60%가 넘는 금리는 비현실적이다. 2013년 같은 등급이었던 롯데하이마트의 회사채 금리가 2.90~3.04%인 것에 비해 0.6~0.7% 높은 수준이다.

현재의 회사채 금리는 3년 만기 기준 2% 초·중반으로 홈플러스가 테스코로부터 대출을 하지 않고 회사채를 발행한다면 최소 1% 이상 저렴한 금리로 차입이 가능하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2013년에 이어 현재도 'AA-'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올해라도 테스코의 대출을 공모시장의 회사채로 전환한다면 1조4458억원의 1%에 해당하는 약 144억원을 매년 절약할 수 있다. 유동성 사채 8000억원을 차감해도 총 대출액은 6400억원이며 공모 시장을 이용하면 매년 64억원이 홈플러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한 애널리스트는 "3.60%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금리다. AA-보다 낮은 A등급의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한다면 2% 후반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아울러 지난해 테스코 본사에 로고와 상표, 라이선스 등에 대한 로열티로 약 760억원을 지급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홈플러스 내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은 세금 공제 후 115만원 정도다. 약 6만6000명 근로자의 월급이 로열티로만 나간 셈이다.

홈플러스 노조 측은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도 홈플러스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않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맞춰 주겠다고 했다. 회사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테스코에는 매년 수 만명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테스코는 매각 전에 1조3000억원의 배당을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15년 간 축적된 홈플러스의 이익잉여금 1조5000억원에 해당한다.

테스코 측은 대신 입찰 회사에 매각대금을 낮춰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홈플러스가 갖고 있는 현금은 264억원이다. 지난해에는 13년치 감가상각을 한해에 몰아서 계상해 7조원대 매출에도 약 3000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다.

2013년 7조3250억원의 매출에 46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과 비교해 매각 전 일부러 회사를 정리하는 수순을 밟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다른 법인이다. 도성환 사장과 경영진이 홈플러스 법인의 이익에 반하면서까지 테스코에 이익을 안겨줬다면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속한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의 배임죄를 저질렀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홈플러스 측은 "경영진의 의도는 우리도 모를 뿐더러 매각 전 민감한 시기라 외부에 사측 입장을 밝히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박상길·김성현기자 sweatsk@

삼성물산 패션 '웨어러블' 세계시장 출사표

업계 첫 'IFA 2015' 참가
스마트슈트·온백 선봬

스마트 슈트(왼쪽)와 온백(오른쪽). /삼성물산 패션부문 제공

삼성물산 패션부문(구 제일모직·대표 윤주화)이 웨어러블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9월 4일부터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A 2015(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Berlin 2015·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에 참가하여 웨어러블 제품을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삼성물산의 전시부스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전시공간 내부에 위치해 있으며 패션과 IT의 융합을 담아낸 의류, 액세서리, 애플리케이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 슈트, 온백, 바디 콤파스, 퍼펙트 월렛의 총 4개 제품이 소개된다.

스마트 슈트(Smart Suit)는 2013년 F/W 시즌부터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남성복 브랜드 로가디스를 통해 소개된 스마트 슈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NFC 태그가 기존의 주머니 속이 아닌 손목 부위의 스마트 버튼에 내장돼 신체의 가장 단순한 움직임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대폭 높인 제품이다. 올해 F/W 시즌 로가디스의 신상품에도 일부 반영돼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새롭게 개발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은 오피스 모드, 회의 모드, 드라이브 모드, 명함 전송 등의 기능은 물론 개인별 맞춤 설정이나 자주 활용하는 앱으로의 연결을 통해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으로서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한다.

온백(On Bag)은 배터리 모듈이 내장된 스마트폰 충전 가방으로서 자석 젠더를 통한 무선(cable-less) 충전이 가능하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터리 잔량 체크, 휴대폰 위치 찾기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온백 역시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올해 론칭한 여성 액세서리 브랜드 라베노바(RAVENOVA)의 가을·겨울 상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액세서리 제품에 반영될 예정이다.

바디 콤파스(Body Compass)는 바이오 스마트 셔츠로 삼성전자와 협업해 선행개발을 진행 중인 케이스다. 심전도(ECG)와 근전도(EMG) 센서가 내장돼 심박과 호흡을 추적할 수 있으며 근육의 움직임과 호흡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운동 코칭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직물 소재의 센서와 신축성있는 전도사를 사용해 착용감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퍼펙트 월렛(Perfect Wallet)은 NFC 태그가 내장된 지갑, 명함지갑, 카드지갑의 남성용 액세서리다. 가을·겨울 시즌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남성복 브랜드 엠비오를 통해 시장에 소개된다.

IFA는 매년 독일 베를린에서 1주일간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다. CES, MWC와 함께 세계 3대 IT·전자제품 전시회로 꼽힌다. 1500여 개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참가해 혁신적인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관계자는 "이제 웨어러블은 글로벌 IT 전시회에서도 키워드로 꼽힐만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라면서 "일반적인 웨어러블이 전자제품을 기반으로 한다면, 분야 특성에 맞게 패션 기반의 제품을 통해 업계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AK플라자, 분당점 새단장 기념 참치 해체쇼 AK플라자(대표 정일채)는 분당점 새단장 오픈을 기념해 9월 3일까지 지하1층 프리미엄 식품관 AK푸드홀에서 '포르투갈산 생물 참다랑어 즉석 시연전'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시연전에서는 참치 전문 쉐프 3인의 150kg의 참다랑어 즉석 해체쇼를 진행한 뒤 부위별 상품 설명과 함께 퀴즈를 통해 고급 부위 시식과 스시세트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AK플라자 제공

BGF리테일, 하반기 100여명 채용

BGF리테일(대표 박재구)이 2015년 하반기 신입(인턴) 사원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직군은 영업관리직군·전략기획직군·재경지원직군·상품운영직군·전문직군 등이다.

온라인 서류접수는 9월 1일부터 9월 19일 오후 6시까지며 방문 접수는 9월 17일부터 9월 19일 오후 6시까지다.

정규직 최종 입사 예정일은 12월, 채용 규모는 약 100여 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CU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성현기자 minus@

"실제 사이즈 경비행기 구경오세요" 현대백화점 천호점이 개점 18주년을 맞이해 9월 6일까지 스위스 시계브랜드 해밀턴에서 실제 사이즈의 '해밀턴 경비행기 전시회'를 진행한다. 또한 항공워치 스페셜라인 카키 엑스-윈드 리미티드 에디션과 카키 파일럿 파이오니어 알루미늄을 선보인다. 카키 엑스-윈드 리미티드 에디션은 전 세계적으로 1999개만 제작된 한정판이다. /현대백화점 제공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 공유

2015 롯데 마케팅 포럼

시나리오플래닝·옴니채널 등 불확실성 시대 전략 강조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최근 불확실성이 만연한 사회에서의 마케팅 전략 키워드 중 하나로 '시나리오 플래닝'과 '옴니 채널'을 꼽았다. 3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15 롯데 마케팅 포럼'에서다.

롯데그룹은 이날 김동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폴 로디시나 AT커니(경영컨설팅회사) 명예회장을 초청해 '불확실한 시대의 선도'를 주제로 정치·사회·문화·소비자 등의 최신 트렌드를 제시하고 복잡성 시대의 전략적 '시프트(Shif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롯데 마케팅 포럼은 신동빈 회장의 지시로 경쟁 고도화에 따른 상황인식과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를 공유하고 그룹 내 마케팅 부문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 주제는 시프트다.

시나리오 플래닝은 우리가 대응해야 할 환경이 단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다양한 스토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복수의 대안적인 미래를 생각해 본 뒤 그 환경에 대한 스토리를 엮어보는 개발작업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의 속성에 대해 인식하고 대응 방안의 단서를 찾는 작업이다.

이는 기업 자신의 환경을 전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측면에서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시적인 측면의 변수부터 생각하면서 좁혀 들어가는 outside-in 형태의 접근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날 신동빈 회장은 행사장에 설치된 대형 휴대폰 화면(터치스크린)을 직접 눌러 핸드백을 고르고 결제한 뒤 택배받을 지역을 선택하는 옴니채널 소비를 시연하며 "복잡한 유통환경의 변화에서 새로운 유통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강연자로 참석한 글로벌 경영컨설팅회사 AT커니(AT Kearney)의 폴 로디시나 명예회장과 함께 롯데푸드와 세븐일레븐 등 계열사 상품과 패키지(포장)를 두루 돌아본 뒤 "상품에 대한 고객의 기대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며 "시장 흐름에 앞서는 우수한 상품을 개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적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강연과 함께 그룹 내 우수 마케팅 사례 시상식도 열렸다. 올해 롯데 마케팅 대상에는 지난해 4월 클라우드 맥주를 출시한 롯데 주류가 선정됐다.

워킹맘 수기공모전 시상식에선 구로구청 천소영씨를 비롯해 문화방송 이은형(금상), 캐논코리아 김미선(금상), 대홍기획 정하림(은상), 사회적기업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배은주(은상), JY학원 강한나(은상) 등 6명이 수상했다. 입상자 6명에게는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들은 롯데가 향후 출간하는 육아휴직자들을 위한 자기개발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 주요 계열사 CEO 20여 명과 국내외 마케팅 담당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1일에는 경기도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국내외 우수 마케팅 사례별 심층 토론이 진행된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일품진로'·'참이슬' 두바이 면세점 입점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의 프리미엄 소주 '일품진로'와 '참이슬'이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 면세점에 입점했다.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와 참이슬이 두바이공항 면세점의 주류코너에서 위스키, 백주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주류와 함께 판매된다고 31일 밝혔다.

일품진로는 쌀을 원료로 한 증류원액을 참나무통에 넣어 10년 이상 숙성시킨 고품격 증류식 소주로 원액을 100% 사용해 숙성한 프리미엄 소주다.

CJ오쇼핑, 협력사 전용 핫라인 개설

CJ오쇼핑(대표 김일천)은 협력사 전용 핫라인 개설, T커머스 채널 입점 기회 확대 등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노력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CJ오쇼핑은 31일 경기도 여주에서 협력사 대표 초청행사 '파트너스 클럽'를 열고 협력사 고충 처리를 위한 전용 핫라인인 'VOP'(Voice of Partner) 신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협력업체 50여 곳이 참여했다.

'행복의 버거' 군 장병들에 1000인분 전달

맥도날드(대표 조 엘린저)는 지난 8월 29일 '행복의 버거' 캠페인의 일원으로 원주 소재의 1야전군 사령부 장병들에게 맥모닝 제품과 음료 1000인분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맥도날드 측은 이번 행복의 버거 전달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장병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맥도날드 '행복의 버거' 캠페인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다양한 구성원과 소외 계층 등에게 맥도날드의 제품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맥도날드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주요 도시의 복지기관과 단체 등에 맥도날드 제품을 매주 800개씩 전달하고 있다.

"가을에는 효도하자" 사은품 증정 행사

전자랜드프라이스킹(대표 홍봉철)은 추석을 맞아 9월 한달 간 안마의자·효도폰 등 효도 상품 구매 시 풍성한 사은품을 증정하는 '가을(애)愛 살맛나는 세일'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30일까지 전국 100여개 지점에서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 건강검진권·홍삼세트 등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 삼성제휴카드 결제 시 결제 금액에 따라 32인치 TV, 제주도 주중 여행권, VIP 베트남 골프여행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부진, 中 황금연휴 유커 공략 나선다

호텔신라

현지 관광설명회 진행

이부진(44·사진) 호텔신라 사장이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유치 마케팅에 나선다. 이 사장은 현지 관광 설명회를 위해 출장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호텔신라는 중국의 중추절(9월 26일~27일)과 국경절(10월 1~7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중국 현지 여행업계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관광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호텔신라는 9월 9일 상하이 푸동지구 '히말라야 예술센터'에서 '삼성 관광사업 브랜드 설명회' 행사를 연다.

이부진 사장과 중국 최대여행사 CTS 쉐샤오강 총재가 악수하고 있다. /호텔신라 제공

설명회는 중국인 관광객을 환대하는 한국의 정(情)을 보여 주고 한국 관광과 쇼핑의 장점과 삼성의 관광사업 브랜드인 신라면세점, 신라호텔, 신라스테이, 에버랜드 등을 소개한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9월 말은 중국의 황금연휴와 메르스 완전 종식 선언 등으로 한국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변곡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중국 여행사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부진 사장은 6월 30일 중국 현지 최대 여행사 대표, 중국 외교부와 국가여유국 관계자 등을 만나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의 한국 방문을 늘려 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박상길 기자

'스마트 외식'… 3D 증강현실 앱 출시

SPC '해피리얼' 앱 출시

SPC그룹(회장 허영인)은 해피포인트 고객을 위한 3D 증강현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해피리얼'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증강현실이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SPC그룹 계열 매장에서 해피리얼 앱을 실행하고 매장의 특정 위치나 특정 제품을 비추면 모바일 기기의 화면을 통해 게임, 색칠놀이, 뮤직카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던킨도너츠에서 도넛 구매 시 제공하는 '자메이카 도넛 박스'의 앞면 이미지를 해피리얼 앱으로 인식하면 서핑보드를 타고 도너츠를 먹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게임 스코어에 따라 1등 100만 포인트부터 5등 1000포인트까지 총 650만 포인트의 해피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배스킨라빈스에서는 아이스크림 컵에 새겨진 로고를 해피리얼 앱으로 비추면 장난감 병정 캐릭터들이 나타나 '이달의 맛' 제품을 재미있게 소개한다.

수험 스트레스 '컨디션 케어 3종'으로 잡는다

한국코와 3종 세트 추천

더가드코와 장내 환경 개선
카베진코와S 속쓰림에 탁월
반테린코와 바른자세 유지

더가드코와

카베진코와S

반테린코와서포터

한국코와주식회사가 다가오는 '201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컨디션 조절이 필수적인 수험생들을 위해 '더가드코와, 카베진코와S, 반테린코와서포터 등'수능 컨디션 케어 3종 세트'를 추천했다.

수능이 다가오는 만큼 꼼꼼한 학습 계획도 중요하지만 학습 능률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수험생의 컨디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코와의 더가드코와는 수능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과민성대장증후군을 겪고있는 수험생에게 좋다. 수능시험에 대한 긴장이 심해지면,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시험기간만 되면 복통과 설사가 반복되며 가스로 인한 팽만감등이 일어나는 증상이 매년 발생되고 있다.

더가드코와는 정장제로 두 가지 생균인 나토균과 유산균이 장내에서 '판토텐산칼슘'과 만나 유익균을 약 20배 증식 시켜주어 장내 환경 개선을 돕는다. 또 제산제가 포함되어 있어, 생균이 장에 내려갈 때 위산을 중화시켜 주며, 가스컨트롤 작용으로 복부팽만감 해소에 탁월하다.

카베진코와S는 일본 내 위장약 시장에서 여러 해 동안 1위를 지키며 올해 55년이 되는 국민 위장약 브랜드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이 흔히 겪는 속쓰림과 소화불량에 좋다. 또 제산, 건위, 소화 작용 등의 효과에 더해 약해진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위장질환으로 인한 반복되는 증상해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외층과 핵층의 작용시간을 달리하도록 2중정(Double Layer) 구조로 설계돼 있다. 위의 활동에 따라 외층의 제산 성분은 과도한 위산을 중화해 위통과 속 쓰림을 진정시킨다. 핵층의 MMSC 성분과 소화효소, 건위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 활동과 위 건강을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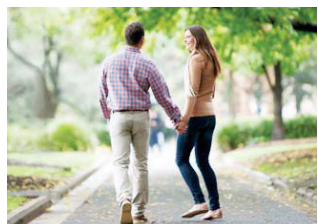
반테린코와서포터는 장시간 앉아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허리를 지지해 줘 피로와 통증 경감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드랄론(Dralon) 면 혼방을 사용해 체온으로 따뜻해진 공기층이 보호대의 온도를 유지하고 허리 주위를 부드럽게 감싸 준다.

또한 하복부를 들어 올리듯 고정함으로써 요추에서 골반에 걸쳐 지지해줘 바른자세 유지에도 좋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센트럴파크에서 色다른 가을 정취 맛본다

쉐라톤 인천 호텔

11월 30일까지 가을 패키지
이국적인 신도시 전경 만끽

쉐라톤 인천 호텔(총지배인 리차드 수터)이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특별한 가을 여행을 보낼 수 있는 가을 패키지를 선보인다.

'쉐린과 함께하는 가을 메시지 패키지'는 넓은 유리창을 통해 도시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디럭스 시티 뷰 1박, 뷔페 레스토랑 피스트에서 성인 2인 조식을 제공하며 쉐라톤 인천의 마스코트인 쉐린과 호텔 전경이 있는 엽서를 증정한다.

엽서에 편지를 써 송진수 작가의 우체통 작품에 넣으면 배달을 해준다. 9월 1일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이용 가능하며 가격은 20만5000원부터다.(V.A.T.별도)

'가을, 사랑에 빠지다 패키지 I'은 디럭스룸 시티 뷰 1박과 함께 로비 바 비플랫(Bb)에서 '칼라 유어 칵테일' 프로모션의 5가지 칵테일 '초록(Gin Basil Smash), 노랑(Yuju Blossom), 보라(Blue Moon), 빨강(Raspberry Daiquiri), 파랑(Linchburg lemonade)' 중 3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돼 있다. 9월 1일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20만원부터다. (V.A.T. 별도)

쉐라톤 인천 호텔은 9월 추석 연휴기간 특별 패키지를 선보인다. '추석 패키지'는 디럭스룸 시티 뷰 1박과 함께 이태리 레스토랑 베네에서 베네 브런치 2인 식사를 즐길 수 있다.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가격은 9월 26일 23만5000원, 9월 27일과 28일은 26만5000원이다. (V.A.T. 별도)

호텔 관계자는 "이국적인 송도 신도시의 전경과 드넓은 센트럴 파크에서 색다른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며 "올 가을 여행은 시원한 서해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는 쉐라톤 인천 호텔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이대목동병원, 전 병동서 환자 안전 캠페인

포스터 전시·손 소독제 배포

환자 안전의 날 /이화의료원 제공

이대목동병원(원장 : 유경하)은 지난 27일 김옥길홀에서 모든 임직원들이 환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지는 '제6회 환자 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병원 로비에서는 환자 안전 포스터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의 전시회가 마련돼 병원을 찾은 내원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시회에서는 직원과 내원객들이 직접 출품된 작품들에 투표를 하면서 직원들의 환자 안전 의식과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반영된 포스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환자 안전의 날'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와 함께 박은애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과 변은경 간호 부원장, 최희연 감염관리실장, 한종인 QPS센터장 등이 전병동을 순회하며 병동 간호사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 캠페인과 휴대용 손소독제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펼쳤다.

기념 행사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수진 PS실장의 '환자 안전 특강'이 있었다. 환자 안전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됐다.

환자 안전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은 영상의학과 특수촬영계가, 환자 안전 UCC 부문에서는 레이디병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치선 기자

공항철도 "열차 기다리는 동안 건강체크 하세요"

검암역, 고객건강쉼터 오픈
혈압·비만도 측정 등 지원

공항철도 검암역 고객건강쉼터가 27일 오픈했다. 건강쉼터를 찾아온 한 고객이 혈압을 재고 있다.

공항철도 검암역에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건강상태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휴게공간인 '고객건강쉼터'가 27일 문을 열었다.

공항철도 11개 역사 가운데 의료측정기를 갖춘 휴게공간이 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암역 고객건강쉼터는 공항철도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지난 2월 체결한 '건강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된 것이다.

공항철도는 검암역 대합실에 48㎡ 규모의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국제성모병원측은 혈압계, 체중·신장·비만도측정기 등의 의료기기와 휴게시설을 지원해 마련됐다.

고객건강쉼터는 검암역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향후에는 국제성모병원 의료진의 이동 검진과 상담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오픈행사에는 공항철도 이성희 부사장과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김준식 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교통과 의료를 접목한 건강나눔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공항철도 이성희 부사장은 "검암역은 공항철도와 KTX 정차역이며 향후 인천지하철 2호선과도 환승되는 인천 서구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보다 많은 이용객이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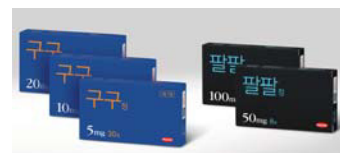
/최치선 기자

한미약품, '팔팔' 신화 '구구'까지 잇는다

타다라필 성분 4일 출시

한미약품이 다음 달 4일 타다라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 '구구'(사진)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구구(타다라필)는 음경의 혈류량을 조절해 발기력을 향상시키는 전문의약품으로 복용 후 약효가 24~36시간까지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 매일 복용하는 5㎎을 비롯해 10㎎, 20㎎ 등 3가지 용량으로 출시되며 일반 정제와 물 없이 씹어먹을 수 있는 츄정 등 2가지 제형을 선 보인다.

한미약품은 2012년 5월 발매한 이후 발기부전치료제 처방량 1위를 달리고 있는 팔팔(실데나필)과의 시리즈 전략을 통해 구구를 또 하나의 팔팔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구구는 숫자 99 또는 한자음 久(오랠 구)와의 연상작용을 활용한 제품명으로 팔팔과의 연음효과를 통해 "99세까지 팔팔하게"(99팔팔), "오래오래 팔팔하게"(久久팔팔) 등으로 해석되는데 한미약품은 이를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구구팔팔 헬스케어 캠페인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최치선 기자

star bag

11월 일본서 싱글 발표

그룹 **엑소**가 오는 11월 4일 일본에서 첫 싱글을 발매한다. 엑소는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음악 축제 '에이네이션 스타디움 페스티벌'에서 싱글 발매 소식을 깜짝 발표했다.

김유정과 한솥밥

'스타 골든벨'의 정답소녀로 이름을 알린 아역배우 **김수정**이 김유정, 김소현 등이 소속된 싸이더스HQ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차기작 선정에 고심 중이며 연기자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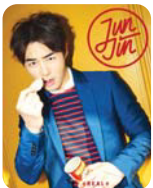
'프로듀사'로 中 팬과 만남

배우 **김수현**이 드라마 '프로듀사'의 중국 프로모션 행사에 참석했다. '프로듀사'에 출연한 공효진, 아이유와 함께 지난달 29일 중국 상하이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에서 열린 이벤트에 참석해 현지 팬과 만났다.

새 앨범 기념 쇼케이스

그룹 **몬스타엑스**가 오는 7일 두 번째 미니앨범 '러쉬(RUSH)' 발매를 기념해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소속사 측은 "이번 미니앨범은 사진과 뮤직비디오, 퍼포먼스에서 완성도를 극대화했다"고 전했다.

위트 있는 젠틀맨 변신

그룹 신화 멤버 **전진**이 두 번째 솔로 앨범 '리얼(#REAL #)'의 재킷 사진을 공개했다. '위트 있는 젠틀맨' 콘셉트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오는 7일 자정 전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영화 '오피스' **고아성**

"요즘 저의 슬로건은 '비욘드 더 힙(beyond the hip)'이에요." '오피스'(감독 홍원찬) 개봉을 앞두고 만난 고아성(23)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새로운 것만 찾다 보면 그 새로움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 속에서도 흥미를 잃지 않고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자는 뜻이에요." 이 말이야말로 배우 고아성에게 가장 적확한 설명일 것이다.

'비욘드 더 힙', 요즘 제 슬로건이에요

정규직 꿈꾸는 인턴사원 캐릭터 공감하며 연기해

성실하게 걷는 배우의 길 새로움 속 흥미 찾고 싶어

'오피스'는 고아성이 '우아한 거짓말'을 마친 다음 선택한 작품이다. 평소 좋아했던 스릴러 장르라 끌렸다. 고아성은 정규직을 꿈꾸는 인턴사원 이미례 역을 맡았다. 고등학생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나이에 어울리는 캐릭터, 그러면서도 독특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직장 생활 경험은 없었지만 이미례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조직 속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갈등, 자격지심과 열등감 등은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작품마다 예민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아한 거짓말' 때는 누군가를 잃은 유가족의 마음을, '풍문으로 들었소'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출산을 연기해야 했죠. 그럴 때는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이 되는 거죠. '오피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연기의 목표는 역할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니까요."

평범한 20대로 등장하는 이미례는 영화 속에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감정적으로 깊은 변화를 겪는다. 이미례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일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다. 감정의 변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도 됐다. 힘든 촬영이 될 것이라 예감했지만 정작 현장에서의 작업은 순조로웠다. 스크린 밖에서 늘 돈독했던 배우들과의 호흡이 편안한 작업에 한몫을 했다.

영화에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대사가 등장한다.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눈치껏 세상과 타협하며 성공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이들 모두 다 회사라는 조직이 만들어낸 피해자임을 영화는 강조한다. 영화 속 이미례는 전자에 속하는 인물이다. 고아성은 "나도 이미례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말처럼 고아성은 새로운 것을 찾아 묵묵히 배우의 길을 걷고 있다.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가 그랬고 짧게나마 출연한 영화 '뷰티 인사이드'가 그랬다. 홍상수 감독과 함께 작업한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는 "짧은 시간 동안 정신없이 찍어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럼에도 재미있는 경험"으로 남았다. 지금 촬영 중인 '오빠 생각'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하며 행복한 기운으로 또 다른 변화를 맛보고 있다.

"언젠가부터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방식이나 개봉할 때의 떨림,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의 설레면서 읽는 마음이 비슷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더 새로운 걸 하고 싶어요. 흥미를 잃지 않기 위해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작품 수도 늘어나고 드라마도 하게 되고 홍상수 감독님처럼 새로운 방식의 영화도 찍게 됐어요.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비욘드 더 힙'이라고요(웃음)."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강풀 웹툰 '마녀' 韓中 동시 영화화

NEW, 한중 합작 프로젝트 1호 선정

강풀(사진) 작가의 웹툰 '마녀'가 영화화된다.

NEW는 "중국 제1의 드라마 제작사 화책미디어와 손잡고 중국 내 합자회사인 화책합신을 올 하반기 중 설립할 예정"이라며 "첫 번째 프로젝트로 강풀 작가의 웹툰 '마녀'를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전했다.

기존 한중 합작 프로젝트는 감독, 배우, 스태프 등 한국의 인력과 중국의 자본이 만나거나 한국 콘텐츠를 중국에서 리메이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NEW의 한중 합작 프로젝트는 기획 단계부터 NEW와 화책미디어가 양국 현지에 최적화된 두 영화 제작을 목표로 원작 판권을 구매한 것이 차별점이다.

'마녀'는 마녀라 불리는 여자를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한국에서는 '방자전' '인간중독'의 김대우 감독이 연출을 맡고 영화사 기쁜우리젊은날과 아이언팩키지가 공동으로 제작한다.

중국에서는 '수상한 미녀'의 중국판인 '20세여 다시 한 번'을 연출한 첸정다오 감독과 시나리오 개발을 진행 중이다. 화책미디어의 영화부문 자회사인 화책연합과 NEW가 함께 제작을 진행할 예정이다.

NEW는 "NEW의 중국 진출은 현지 시장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찾는 작업부터 회사의 형태 등 파트너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중요한 지향점은 중국 시장형 맞춤 콘텐츠를 만든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가장 잘 맞는 작품을 만들기 위한 현지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병호 기자

A New Broadway Musical 신데렐라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주)이엔티아이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빠른 리듬으로 그리는 착한 가족 드라마

| 제작발표회 | MBC 새 주말극 '엄마'

동시간대 같은 소재 경쟁
신세대 감각에 초점 맞춰

MBC 새 주말연속극 '엄마'가 신세대 감각을 내세워 안방을 찾는다.

'엄마'는 '여자를 울려' 후속으로 오는 5일 저녁 8시45분에 첫 방송된다. 공교롭게도 동시간대 KBS2에서 방송되는 주말극 '부탁해요 엄마'와 소재가 겹친다. 가족드라마에서 늘 중심이 되는 엄마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작품들이다.

31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연출을 맡은 오경훈PD는 "엄마라는 인물을 통해 각박해진 가족 관계와 달라진 세태, 실버 세대의 여러 문제들을 화두로 삼으려고 했다"며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 신세대 감각에 맞춰 연출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재미있고 달콤하게 그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PD는 "정극과 코믹극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배우를 캐스팅했다. 템포나 리듬이 빨라야 하고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부탁해요 엄마'와의 차별점을 밝혔다.

'엄마'는 오랜 세월 자식들에게 희생하며 살아온 엄마 윤정애가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다 내주고 빈 껍질만 남은 자신을 짐스럽게 여기는 자식들을 향해 펼치는 통쾌한 복수극을 그린다.

타이틀롤인 엄마 윤정애는 배우 차화연이 연기한다. 그는 "드라마마다 색깔이 있다. 중년 세대가 생각보다 연애에 관심이 많다. 역할과 드라마 구성, 호흡에 충실하다 보면 '부탁해요 엄마'와의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상암신사옥에서 열린 주말드라마 '엄마'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출연진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엄마를 소재로 하지만 모성애보다 가족간의 이해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그렸다는 점이 신선하다. 부모와 자식의 갈등을 그렸지만 무게감을 덜고 세대별로 펼쳐지는 로맨스로 발랄함을 더했다. 여기에 중장년층의 사회적인 문제와 외로움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진다. 'N포세대'라 불리는 젊은 세대의 문제점 등 세대별로 화두가 되는 이야기도 함께 모았다.

'그대 그리고 나' '엄마의 바다' '누나' 등으로 주말 안방극장에서 진한 감동과 깊이 있는 메시지를 선사해온 김정수 작가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불새'를 연출한 오경훈 PD와 '누나' 이후 9년 만에 의기투합한다. 차화연 외에도 장서희, 김석훈, 이태성, 최예슬, 이문식, 윤유선, 박영규, 홍수현, 강한나 등이 출연한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묘한 삼각관계, 강수지의 마음을 훔쳐라

◆ SBS '불타는 청춘'
오후 11시15분

원조 청춘스타 박형준과 김국진이 강수지를 두고 묘한 삼각관계 구도를 형성한다. 박형준은 강수지만을 위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담배가게 아가씨'를 열창하며 힘찬 안무까지 선보인다. 게다가 강수지의 외모를 칭찬하는 '심쿵' 멘트로 그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이에 김국진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강수지를 향한 연하남의 적극 애정 공세를 견제하려고 하지만 고전을 면치 못한다.

/정리=하희철 기자

◆ KBS1 '미래 100년, 유라시아를 가다'
오후 10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베를린까지 1만4400㎞에 이르는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유라시아 친선특급 대장정'에 나서는 정부의 방향성을 진단한다.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링 위를 주름잡던 파이터 추성훈이 전학생으로 온다. 첫 등교일 아침에 남학생들에게 엄청난 환호를, 여학생들에게는 애정 가득한 쪽지를 받으며 순탄한 학교생활이 펼쳐진다.

◆ JTBC '내 나이가 어때서'
오후 9시

실제 부부인 배우 우현과 조련이 출연해 집안 서열 최하위의 아빠와 집안 최고의 권력자인 엄마 역할을 맡아 한 소년의 삶을 어른들의 눈으로 중계해본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홈스토리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11:55 바른말 고운말 (재)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별난 며느리 (재)	05:00 MBC 뉴스 05:10 특선 어부의 만찬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충전 힐링 라이프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신인류 식품관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S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닥터의 승부 (재) 10:25 마녀사냥 (재) 11:55 냉장고를 부탁해 (재)	05:50 나는 자연인이다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현장르포 특종세상 (재) 11:5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05:00 수요미식회 (재) 06:00 SNL 코리아 꿀잼 에디션 (재) 06:30 집밥 백선생 (재) 07:50 삼시세끼 어촌편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Let 미인 5 (재)	05:00 큐티 06:00 놀랍지 아니한가 (재) 06:30 그림있는 집 (재) 07:00 권은순의 리빙앤스타일 (재) 07:30 야무진 공방 (재) 08:00 디자인 매거진 룸 S2 (재) 09:00 류승주의 건물탐방 (재) 09:30 자신만만 인테리어 (재) 10:00 스타 뉴스 11:00 그림있는 집 S2 11:30 어반 레전드 (재)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KBS UHD특선 2015 특별기획 바다의 제국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야생일기 (재) 16:20 TV, 책을 보다 (재) 17:20 시사진단	12:0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재) 13:10 체인지업 도시탈출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특선다큐 <세계대전> 15:05 후토스 미니미니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별별가족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VJ 특공대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TV속의 TV 13:2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재) 14:05 내꺼야 폴록 (재) 14: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15:00 MBC 뉴스 15:10 꼬마돌 도도 15:40 통일전망대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불타는 청춘 (재)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00 SBS 뉴스 15:10 창업 스타 (재) 16:00 꾸러기탐구생활 스페셜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13:15 비정상회담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2:0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4:0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5:30 두번째 스무살 (재) 17:00 두번째 스무살 (재)	12:00 캐리비안 드림하우스 (재) 12:30 플리마켓 리폼대작전 (재) 13:00 싱글 생활백서 (재) 14:00 이색적인 이사 (재) 14:30 우리집을 살려줘 (재) 15:00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재) 15:30 적중창업 (재) 16:00 류승주의 건물탐방 (재) 16:30 내 남자의 목공 (재) 17:00 와타나베의 건물탐방 S2·3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이웃집 찰스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미래 100년, 유라시아를 넘다 23:00 KBS 뉴스라인 23: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24:35 2015 서울드라마어워즈 해외드라마걸작선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다 잘될 거야 20:30 생생정보 20:55 1 대 100 22:00 별난 며느리 23:10 우리동네 예체능 24:3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55 뮤비뱅크 2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정 23:15 PD수첩 24:10 MBC 뉴스 24 24:20 MBC 100분 토론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SBS 뉴스토리 22:00 미세스캅 23:15 불타는 청춘 24:35 나이트라인	18:3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9:55 JTBC 뉴스룸 21:40 내 나이가 어때서 23: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24:25 라스트 (재)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21:50 휴먼다큐 사노라면 23:00 엄지의 제왕 24:40 엄지의 제왕 (재)	18:30 명단공개 (재) 19:40 오 마이 갓 20:40 현장토크쇼 TAXI 21:40 집밥 백선생 23:00 막돼먹은 영애씨 14 24:20 현장토크쇼 TAXI (재)	18:00 필로교수의 쿠킹콘서트 한우예찬 19:30 우리집을 살려줘 (재) 20:00 자신만만 인테리어 20:30 싱글 생활백서 21:00 야무진 공방 (재) 21:30 그림있는 집 S2 22:30 Boy's Toys (재) 23:00 이색적인 이사 24:00 캐리비안 드림하우스 (재) 24:30 DIY 프로젝트 (재)

‘무패’ 스완지시티 기성용, ‘거함’ 맨유 격침

크리스털 팰리스 이청용, 첼시에 승리… 리그 2위로

기성용(사진)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하며 팀의 역전승에 기여했다.

스완지시티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EPL 4라운드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2-1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관심을 모은 것은 어느 팀이 무패 승진을 이어갈 것인지였다. 맨유는 앞선 3경기에서 2승1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스완지시티 역시 2승1무로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전력에서 앞선 맨유의 승리를 점쳤다. 웨인 루니를 비롯해 후안 마타, 펠라이니 등의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건재했고 이번 시즌부터 합류한 독일 국가대표팀의 베테랑 슈바인슈타이거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은 둥글었다. 스완지시티는 전반 초반 맨유에 볼 점유율을 빼앗겼지만 전반 중반 이후부터 활기를 찾으며 맨유를 밀어붙였다. 전반 26분 길피 시구드르손의 슈팅이 골대를 살짝 빗겨갔다. 1분 뒤에는 바페팀비 고미스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선제골은 맨유의 차지였다. 맨유는 후반 3분 만에 웨인 루니가 내준 볼을 쇄도하던 후안 마타가 받아 순식간에 골을 만들어냈다.

스완지시티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기성용이었다. 게리 몽크 감독은 후반 11분에 기성용을 투입했다. 그의 용병술은 제대로 맞아떨어졌다. 기성용이 들어간 지 4분여 만에 안드레 아예우가 헤딩슛으로 동점골을 꽂아넣었다.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스완지시티는 후반 20분에는 아예우의 패스를 받은 고미스가 역전골을 만들어냈다.

스완지시티는 동점골 만회를 위해 반격에 나선 맨유의 공격을 잘 막아내며 강팀 맨유를 상대로 귀중한 승점 3을 획득했다. 이날 승리로 스완지시티는 2승2무를 기록하며 시즌 개막 후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맨유는 2승1무1패로 처음으로 패했다.

크리스털 팰리스의 이청용도 전날 열린 첼시와의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는 데 한몫을 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지난달 30일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첼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이청용은 2-1로 앞선 후반 39분 바카리 사코와 교체 투입돼 약 11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크리스털 팰리스의 막판 공세에 힘을 보탰다. 2연승을 달린 크리스털 팰리스는 3승 1패(승점 9)를 기록해 맨체스터시티에 이은 리그 2위로 올라섰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추신수, 후반기 34경기 모두 출루

볼티모어전 1안타·1득점
강정호는 3일 만에 결장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후반기 선발로 출전한 전 경기에 출루하는 기록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홈 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5타수 1안타를 치고 득점 1개를 올렸다.

추신수는 첫 타석에서 깨끗한 안타를 날려 텍사스의 기선 제압에 중심 노릇을 했다. 1회 무사 1루에서 볼티모어 우완 선발 투수 미겔 곤살레스의 초구를 잡아당겨 우익수 빨랫줄처럼 뻗어가는 안타를 날렸다. 워낙 잘 맞은 탓에 직선타인 줄 착각한 1루 주자가 2루에서 아웃됐다면 타구는 기록상 우익수 앞 '땅볼'에 그칠 뻔했다. 하지만 발 빠른 주자 델리노 드실즈가 안타임을 확인한 뒤 전력 질주해 슬라이딩으로 2루에서 살면서 안타가 됐다.

추신수는 이 안타로 후반기에 선발로 출전한 34경기에 모두 출루했다. 아울러 지난달 7일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경기 이래 21경기 연속 출루도 달성했다.

벨트레의 희생플라이 때 3루에 간 추신수는 후속 미치 모어랜드의 타석 때 폭투가 나오자 바로 홈으로 쇄도해 팀의 두 번째 득점도 올렸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나흘째 0.248(432타수 107안타)에 머물렀다. 텍사스는 선발 투수 데릭 홀랜드의 눈부신 역투와 타자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6-0으로 이기고 4연승을 거뒀다.

한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는 사흘 만에 결장했다. 피츠버그는 0-5로 패해 연승행진을 '4'에서 마감했다. /하희철 기자

맨시티, 980억원에 데 브루잉 영입

몸값 8배 폭등 '위상 확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단 한 명의 선수 영입에 무려 5400만 파운드(약 980억원)의 이적료를 지불했다. 그 주인공은 볼프스부르크(독일)에서 뛰고 있는 벨기에 축구 대표팀 공격형 미드필더 케빈 데 브루잉(24·사진)이다.

맨시티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데 브루잉과 6년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24세인 데 브루잉은 2008년 헹크(벨기에)에서 프로에 데뷔한 뒤 2012년 1월 이적료 700만 파운드(약 127억원)의 몸값으로 첼시(잉글랜드) 유니폼을 입었다. 곧바로 다시 헹크로 임대됐고 그해 8월 브레멘(독일)으로 재임대를 떠났다.

브레멘 임대 시절 33경기에서 10골을 터트린 데 브루잉은 지난해 1월 볼프스부르크에 이적료 1800만 파운드(약 326억원)로 완전 이적했다. 이후 팀에서 통산 51경기 13골을 넣으며 공격 조율 능력과 득점력을 과시했다.

프리미어리그에 재입성하게 된 데 브루잉은 헹크에서 첼시 유니폼으로 갈아입을 당시 이적료보다 무려 8배가 폭등한 몸값으로 맨시티에 입단해 3년 만에 달라진 위상을 확인했다. /하희철 기자

배상문, 입대 전 우승 '좌절'

PGA 바클레이스

PO 1차전 공동 6위 추락

군 입대 전 또 한차례의 우승을 노렸던 배상문(29·사진)이 제이슨 데이(호주)의 독주에 좌절했다.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에디슨의 플레인필드 컨트리클럽(파70·7012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바클레이스 4라운드에서 공동 선두로 출발한 배상문은 버디 3개에 보기 5개를 쏟아내 2타를 잃었다. 합계 9언더파 271타로 공동 6위에 랭크되며 대회를 마쳤다.

배상문은 아쉽게 우승은 놓쳤지만 페덱스컵 랭킹을 34위에서 23위로 끌어올렸다. 오는 4일 개막하는 플레이오프 2차전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에 무난히 진출했다. 다음주 대회는 페덱스컵 랭킹 100위 안에 드는 선수들만 출전한다.

우승컵은 대회 마지막 날에도 8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두른 데이(19언더파 261타)에게 돌아갔다.

올 시즌 생애 처음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급상승세를 탄 데이는 시즌 4승과 함께 상금 148만5000 달러(약 17억5000만원)를 받았다. 또 페덱스 랭킹에서도 4459점을 받아 이번 대회에서 컷탈락한 조던 스피스(미국·4169점)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번 시즌 PGA 투어에서 4승을 거둔 선수는 데이와 스피스 뿐이다.

2013년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배상문은 지난해 10월 2014-2015 시즌 개막전 프라이스닷컴오픈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우승에 도전했다.

데이와 공동 선두로 4라운드에 나선 배상문은 데이와 나란히 2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기싸움을 이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배상문은 갑작스러운 샷 난조에 빠져 3번홀부터 10번홀까지 5타를 잃어 버렸다. 12번홀(파5)과 13번홀(파4)에서 1타씩을 줄였지만 데이는 이미 멀찌감치 달아난 상태였다. /하희철 기자

생활 영어

You've got what they want

A: Coffee tomorrow?

B: Sorry. I'm going on a biz trip.

A: Again? Where to?

B: Singapore.

A: It seems like you're out of the country most of time.

B: I need to attract more foreign investors.

A: Don't worry about a thing. They'll definitely want to invest.

B: Thanx.

A: I'm telling you. You've got what they want.

B: Thanks for the pep talk. :)

A: Anytime. :D

B: No, really. You just made my day! :)

넌 그들이 원하는 걸 가졌어

A: 낼 커피 어때?

B: 미안. 출장 가게 됐어.

A: 또? 어디로?

B: 싱가포르.

A: 넌 거의 맨날 해외에 있는 거 같더라.

B: 더 많은 해외 투자가들을 끌어들여야 하거든.

A: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그 사람들은 분명히 투자하고 싶어할 거야.

B: 고마워.

A: 정말이야. 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가졌잖아.

B: 격려 고마워.

A: 뭐 그쯤이야. :D

B: 아니, 정말이야. 너 땜에 기분 좋아졌어.

* biz: business의 약어
* Thanx: Thanks의 약어
* pep talk: 격려의 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2							3
				9	3	4		
	1			8	2		7	6
			8			6	3	
				6				
	9	6			1			
5	8		2	7			4	
		9	5	1				
6							2	5

8			5			3	1	
3			7	6	9	2		5
		7		1				
7							3	
				7				
	1							4
				8		6		
4		6	9	2	3			8
	7	8			6			3

스도쿠 정답

8	2	4	6	5	7	9	1	3
7	6	5	1	9	3	4	8	2
9	1	3	4	8	2	5	7	6
1	5	2	8	4	9	6	3	7
4	7	8	3	6	5	2	9	1
3	9	6	7	2	1	8	5	4
5	8	1	2	7	6	3	4	9
2	3	9	5	1	4	7	6	8
6	4	7	9	3	8	1	2	5

8	6	9	5	4	2	3	1	7
3	4	1	7	6	9	2	8	5
5	2	7	3	1	8	4	6	9
7	8	4	2	9	1	5	3	6
9	3	5	6	7	4	8	2	1
6	1	2	8	3	5	7	9	4
1	9	3	4	8	7	6	5	2
4	5	6	9	2	3	1	7	8
2	7	8	1	5	6	9	4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결혼 할 인연을 언제쯤 만날까요?
생활공간 청소 등 풍수교정 해 보시길

하쿠나마타타 여자 79년 1월 6일 음력 21시 45분경

Q 선생님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꾸 타박만 하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원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상처받고 제 자존감만 낮아지는 거 같아서 저를 위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요. 나이가 있으니 부모님께서는 저의 결혼문제에 스트레스를 받고 저 또한 불효하는 거 같아 마음이 너무 편치 않습니다. 저에게 좋은 인연은 언제쯤 올 수 있나요? 냉정하고 차가운 남자가 아닌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를 만나 서로 존중해주며 작은 행복을 느끼고 싶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연애운은 언제 오고 결혼운은 언제쯤 올까요?

A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가령 대인관계가 악화되거나 영업실적이 부족하면 좀 더 인내심을 기른다던지 혹은 윗사람이나 주변의 조언을 구해 문제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또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더욱 열심히 일하거나 형편이 나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고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지요.

각각의 사항들에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상황을 개선시키는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쉽게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재의 귀하처럼 사이가 악화되어 좀체 예전과 같은 애정을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이런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모호합니다. 물론 상담이 도움 되기는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더 참고 상대를 이해해 보도록 애써보라는 식의 조언은 하는 이도 민망하고 듣는 이도 짜증스러운 한마디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 이상으로 효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권해보겠습니다.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이란 말이 있는데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남녀간에 연애를 할 때도 대처해야 할입니다.

집안의 현관부터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실이나 방안에 놓인 전화기를 서쪽이나 남서쪽 방향으로 옮겨 놓으면 반가운 소식이 찾아 올 것입니다. 대개 부자의 집이 가난한 사람의 집보다 훨씬 청결합니다. 빈부가 극도로 갈리는 상황이 아니어도 부자라고 행복하다고는 하지 않겠으나 이것을 현재의 생활공간을 바꿔 삶 자체에 변화를 주는 풍수 교정 이라고 합니다. 건강해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 이왕이면 부자로 잘사는 가장 쉬운 비결이 풍수에 녹아 있으니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1일 (음 7월 19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경거망동을 삼가하세요. **60년생** 만난지 얼마 안된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도록 하세요. **72년생** 거짓말은 절대 안됩니다. **84년생** 경험과 직감이 성공의 길로 인도합니다.

49년생 즐거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61년생** 친구들과 함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하세요. **73년생** 주변인에게 도움을 받아 어려운 일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85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50년생 아이가 아프면 지체 말고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62년생** 모든 일에 대한 결과는 결국 자기 몫입니다. **74년생** 돈 조심 불량배를 조심하세요. **86년생**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운입니다.

51년생 문어발식 확장은 결국 공멸로 이어집니다. **63년생**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75년생** 동기간으로 인한 망신 수를 겪습니다. **87년생** 애인과의 여행을 준비하세요.

52년생 안방이나 현관문이 정북인 것은 피하세요. **64년생** 복이 깃드니 하루가 편안한 날입니다. **76년생**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터집니다. **88년생**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53년생 독한 면을 보임도 이득이 됩니다. **65년생** 서류상의 문제라면 풀릴 기미가 보입니다. **77년생** 현장 경험도 큰 도움이 됩니다. **89년생** 한 가지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 실속이 따릅니다.

54년생 소망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66년생** 아직 귀하의 때가 아닙니다. **78년생** 사업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90년생** 일이 많아지나 마음은 편안합니다.

55년생 항상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67년생**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79년생** 부주의로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91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습니다.

56년생 분수껏 행동하는 것이 유익 하리라 봅니다. **68년생** 권력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80년생** 모든 것은 항상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92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조심하세요.

57년생 무사 튼튼하게 노력하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69년생** 전업이나 취직 등은 어려운 운입니다. **81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93년생** 방황했던 마음을 바로 잡는 운입니다.

58년생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으니 분명히 이루게 됩니다. **70년생**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82년생** 허황된 일은 삼가야 합니다. **94년생** 역경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부딪혀 보세요.

59년생 도모하는 일이 호황을 맞게 됩니다. **71년생** 미룰 수 있는 여행이라면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83년생** 매매는 이루어지기 어렵겠습니다. **95년생** 사업이 번창일로에 있습니다.

계약서는 합의의 결과지 목표가 아니다

김재현 변호사의
BizLaw

한국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이 중요한 거래조건들만 계약서에 적고 나머지 조건들은 민법이나 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적인 조건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법과 관행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계약체결이 매우 쉬워진다. 이런 관행 때문에 한국에서는 수 십 억원 가치의 부동산 거래도 한 페이지짜리 계약서로 마무리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이런 형태의 계약 체결방식은 계약서가 간단하기 때문에 계약의 핵심 조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관행에 변화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되었다. 즉 영미 계약법 실무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계약서를 만들 때 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계약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서가 상당히 상세하고 길다. 계약서가 상세하고 길면 예상한 상황이 실제로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기업 간 거래에서 상당히 상세하고 복잡한 계약서들이 많이 활용 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국제거래인데도 3 페이지짜리 계약서로 오랜 세월 동안 분쟁없이 사업을 잘 하기도 한다. 그런데 200 페이지나 되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도 어처구니 없는 분쟁이 생겨 사업 자체가 망가지기도 한다.

계약서가 상세하면 분쟁 시 처리할 수 있는 방향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한 데 여전히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보면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계약조건에 대해 협상을 해 보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심지어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한 후 회의장 밖으로 나와 돌아서서 그 쟁점에 대해서 다시 물어 보면 서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 충분히 합의한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의사의 합치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언어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실무상 계약 협상을 할 때 기본적인 합의내용에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 초안을 먼저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계약조건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계약의 부수적인 조건들은 이런 순서로 협의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는 한데 핵심 조건들은 가능한 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의도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일치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합의사항을 계약서에 녹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의 진심과 진정한 의도가 정확하게 반영 된 거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초를 잘 만들어 놓으면 분쟁의 가능성도 더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계약서라는 것은 합의의 결과물인 것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대차의 타사 '깎아 내리기' 홍보… 경쟁사는 '상처'

기자 수첩
정 용 기
<산업부>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가 잇따르면서 타사 제품을 들어 경쟁 차종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다. 겨뤄보자는식이다. 신차발표회·기자간담회 등에서 자사 신차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 관계자들은 경쟁사의 차종과 비교하며 '깎아 내리기' 식의 홍보는 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심스러워 하는 편이다. 상도에 어긋날 뿐더러 도움이 안된다.

최근 현대·기아자동차가 발표한 '2004년 대비 2014년 자국 생산 증가량·증가율' 자료를 들여다보면 타사'깎아 내리기'식 홍보 전략이 보기 좋지는 않다. A4 7장에 달하는 자료에는 10년간 자국생산량이 감소한 GM(제너럴모터스), 포드, 토요타 등 경쟁업체의 생산량 감소 추이가 보기 좋게 요약돼 있다. 단연 현대·기아차의 자국 생산 증가량·증가율은 돋보였다.

세계 완성차업체 5위의 현대·기아차가 최근 중국시장 부진과 국내 판매량 감소에 따라 적잖은 위기감을 느끼고 경쟁사 '깎아 내리기'를 하는 듯 보여 안타깝다. 현대·기아차의 이러한 성과 발표를 지켜본 경쟁사 관계자들은 낯설고 불편해 한다. 기자들도 이 같은 경쟁사 생산량 감소 내용은 빼거나 줄여 기사를 작성한 것이 많다. 이 자료에서 GM과 PSA의 인력감축, 임금동결 등의 불편한 과거들을 기재했다.

현재 현대차는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돼 노동조합의 파업이 예상되고 기아차는 사내하청 노동자 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기아차의 자국 생산량·생산율 증가로 국가경제에 기여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 비교방법은 눈살을 찌푸리게한다. 현대·기아차도 자사의 임단협 결렬, 파업, 사내하청 노동자 해고 논란 등의 내용이 경쟁업체의 성과발표 자료에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 사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윤인대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정태윤
◇병무청 △승진임용(과장급) ▲동원관리과장 이관연
◇중소기업청 △부이사관 승진 ▲창업벤처국 벤처정책과장 김성섭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겸 기획본부장 안종호
◇강원도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대한건설협회 △실장급 승진 ▲2급 시장개척실장 강경완 ▲건설경제신문사 경영기획실장 송광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실장 임종구
◇한겨레신문 ▲디지털미디어사업국 휴기획팀장 유제호 ▲출판국 출판마케팅팀장 김범준 ▲경영지원실 <한겨레온> 에디터 이동구
◇서울대 ▲공과대학장 이건우 ▲공과대학 교무부학장 안경현 ▲공과대학 학생부학장 곽승엽 ▲미술대학 부학장 신하순 ▲음악대학 부학장 전상직 ▲환경대학원 부원장 윤순진 ▲국제대학원 부원장 박태균 ▲국제협력본부 부본부장 조승아
◇서강대학교 △임명 ▲교육대학원장 최기영 ▲정보통신대학원장 박석 ▲영어영문학과장 김영주 ▲일본문화전공주임 박단 ▲전자공학과장 김영록 ▲종교학과장 박병관 ▲컴퓨터공학과장 양지훈 ▲프랑스문화학과장 전종호 ▲화학과장 신관우 ▲동아연구소장 신윤환 ▲사회과학연구소장 류석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래위원회 위원장 김원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 김학민 ▲산학협력단장 한만덕 ▲법과학대학원장 홍성욱

社 說

재벌 흉내내는 사립대학

4년제 사립대학의 적립금이 약간 줄어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의 2014년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8조1872억원에 이른다.

2013년의 모두 8조1887억원보다 15억원 감소한 것이다.

사립대학들은 지난해 적립금 1조3618억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1조1242억원만 쓴 반면, 당초 계획됐던 6822억원보다 80%가량 웃도는 1조2148억원을 새로 적립했다.

적립금을 쌓고 보는 악습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셈이다. 이화여대나 홍익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여전히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이 그렇게 많은 적립금을 쌓아둘 필요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대학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기관이다. 따라서 대학은 수익을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적립금을 쌓기보다는 교육여건 개선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도 모자라면 정부나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특히 적립금을 쌓을 정도로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교육여건개선도 지지부진하다. 특히 일부 대학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했다가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대학답지 않은 이기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면서 임금인상이나 배당, 협력업체 하도급 대금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재벌과 다를 바 없다. 말하자면 사립대학이 재벌 흉내를 내는 셈이다.

최근 등록금 인하요구가 거세게 일자 대학 적립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에게는 '소귀에 경읽기'일 뿐이다.

재벌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축적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마련됐듯이, 대학의 지나친 적립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금이 부과돼야 하는 것일까?

불량제품, 환불이나 교환 안해줄때

생활법률

최근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쇼핑한 김모(26)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옷가게 주인이 김씨가 구매한 옷의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지 않았던 것.

구매한 옷에 흠집이 있어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했지만 가게 주인은 사전에 밝힌 환불·교환 불가 공지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불량품을 가져다 팔고 교환도 안해준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항변했지만 소용 없었다. 서로 간에 고성만 오갈 뿐이었다.

이럴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을까. 혹여 환불·교환을 거부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우선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에 해당할 경우 상품의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다.

김씨의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다.만약 해당 법률을 제시했는데 가게 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한국소비자원에신고해 중재를 받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나섰는데도 가게 주인이 환불·교환을 거부하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제품을 사진 촬영하는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2009년 당시 최모씨는 김씨와 같은 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환불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법률 6조를 근거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